This material has been provided by Asbury Theological Seminary in good faith of following ethical procedures in its production and end use.

The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title 17, United States code) governs the making of photocopies or other reproductions of copyright material. Under certain condition specified in the law, libraries and archives are authorized to finish a photocopy or other reproduction. One of these specific conditions is that the photocopy or reproduction is not to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rivate study, scholarship, or research."* If a user makes a request for, or later uses, a photocopy or reproduction for purposes in excess of "fair use," that user may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is institution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to accept a copying order if, in its judgment, fulfillment of the order would involve violation of copyright law.

By using this material, you are consenting to abide by this copyright policy. Any duplication, reproduction, or modification of this material without express written consent from Asbury Theological Seminary and/or the original publisher is prohibited.

Contact
B.L. Fisher Library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4 N. Lexington Ave.
Wilmore, KY 40390

B.L. Fisher Library's Digital Content
place.asburyseminary.edu

HELPING THE TEACHER

A Transl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Asbury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Master of Religious Education

---

by

Hyunsoon Kim

May, 1966

HELPING THE TEACHER

A Transl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Master of Religious Education

Approved:

Paul H. Wood

by

Hyunsoon Kim

May, 1966

FOREWORD

In her study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leading to the Master of Religious Education, the writer became interested in the text book on teaching methods in the Sunday School, Helping the Teacher by Findley B. Edge. She felt that people in her native Korea could benefit from reading this book in their own language.

Permission was secured from Broadman Press to translate the work, and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mmittee 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of Asbury Theological Seminary to make this translation a part of her program of study and satisfy certain basic requirements.

The author wants to express her appreciation to the Broadman Press for their cooperation and to Rev. Marlin L. Nelson, Korea Director, World Vision, Inc., for his careful check of the translation, and Miss Ji-Mai Chang for typing in the Korean language.

Hyunsoon Kim

May, 1966

주 일 학 교 교 수 법

F. B. Edge 저

신 현 순 역

부로드맨 출판사, 테네시.

차 례

서 언 ---------- 1

제 1 장 교안 작성을 위한 제의 -------- 2

제 1 절 교사 개량을 위하여 ---------- 2

교사의 필수 분야 ---------- 3

교사 양성의 여러가지 시도 ------ 7

연속적인 학교 ---------- 11

교수 개량을 위한 시기 -------- 12

장 점 ---------- 15

제 2 절 교안 작성의 단계 ---------- 17

계획의 중요성 ---------- 18

실제적인 Aids ---------- 19

배경적 준비 ---------- 21

교안 개요 ---------- 23

목적 선정 ---------- 25

학기 목적 ---------- 27

단위 목적 ---------- 28

교과 목적 ---------- 30

교안 준비에의 안내 --------- 34

제 3 절 행동 반응을 위한 교육 ---------- 36
목적 있는 성경 공부 ---------- 36
교과의 발전 ---------- 42
교과의 개인적응 ---------- 46
실 천 ---------- 47
고안 준비에의 안내 ---------- 52

제 4 절 지식 증가를 위한 교육 ---------- 54
성경 지식 조사의 결과 ---------- 55
지식 목적을 가진 교육 ---------- 57
지식을 가르치는데 따르는 요소 --- 61
고안 작성의 단계 ---------- 64
고안 작성 ---------- 66
복습의 위치 ---------- 67
훈련의 위치 (Drill) ---------- 70
고안 준비에의 안내 ---------- 71

제 2 장 여러 가지 방법의 사용 ---------- 73

제 5 절 방법의 소개 ---------- 73
방법에 대하여 ---------- 74
방법의 일반적 문제 ---------- 75
방법 선정 ---------- 77
방법의 여러가지 ---------- 79

제 6 절 질의 문답식 ---------- 81
질문의 형식 ---------- 81-1
생각의 격려 ---------- 84
질문의 개선 ---------- 85
학생의 질문 ---------- 88
교안 준비에의 안내 -------- 91

제 7 절 토 론 식 ---------- 92
토론식 ---------- 92
좋은토론이될수있는 요건들 --- 95
토론의 형식 ---------- 100
교사의 기능 ---------- 103
가 치 ---------- 106
단 점 ---------- 107
교안 준비에의 안내 ------- 108
토론식의 평가 ---------- 113

제 8 절 강의식 ---------- 115
가 치 ---------- 116
단 점 ---------- 118
사용의 회수 ---------- 119
강의의 준비 ---------- 121
강의 할때 ---------- 123

강의의 장점 ---------- 125
교안 준비에의 안내 ------- 126

제 9 절 이야기와 설명 (예화) ---------- 127
배움과의 관계 ---------- 128
목적과 사용 ---------- 129
원천 ---------- 131
교안에 예화 사용 ---------- 136
이야기 할때 ---------- 137
좋은 이야기의 내용 ------- 139
교안 준비에의 안내 ------- 140

제 10 절 흉내 내기 ---------- 142
정의 ---------- 142
예 ---------- 143
전 교과 준비에 흉내내기 ----- 147
흉내내기를 사용하는 단계 ---- 148
장점과 단점 ---------- 150
교안 준비에의 안내 ------- 151

제 11 절 계 획 ---------- 152
계획과 배움 ---------- 153
형 식 ---------- 155
계획을 지도 하는 단계 ----- 158
가 치 ---------- 161
주의 사항 ---------- 162
교안 준비에의 안내 ------- 163

제 12절 시각 교육 도구 ---------- 164
칠 판 ---------- 166
지 도 ---------- 168
평지 사건 ---------- 171
견 학 ---------- 173
게시판 ---------- 176
사 물 ---------- 176
모 형 ---------- 177
도 안 ---------- 178
그라프 ---------- 179
연 극 ---------- 179
교안 준비에의 안내 ------ 180

제 13 절 투영적 시각 교육 도구 ---------- 182
어귀의 난점 ---------- 183
사용 원리 ---------- 185
영 화 ---------- 187
휠림 스트립 ---------- 190
이 재료를 사용할때 ---------- 191
환 등 ---------- 192
불투명 영사 ---------- 193
교안 준비에의 안내 ---------- 194

서 언

주일학교 반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사람들이라 할수 있다. 그들의 교육은 헤아릴 수 없이많은 생명에게 축복이 되어 왔고 그들 자신이 교육의 영적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자신들의 미약함을 여실히 알고 있고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책이 시도하는 점은 이런 교사들이 공과 준비 공부시간을 잘 이용하고 이해하여 더 많은 지도를 받게 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각 부장들이 교사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재료 원천이라 할수 있다.

제 1 장은 각 부장들이 갖추어야할 준비를 상세히 제시해 준다. 그 다음 장은 교사들이 익숙히 알고 사용하여야할 11 가지 교수법을 설명한다. 부장들은 교사들의 공과 준비 공부 시간에 이러한 교수법을 교사들에게 가르치며 교사들이 배운 교수법의 원칙에 따라 그 다음주일공과를 준비하도록 지도하여야한다. 이 교수법을 공과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다. 과거의 지도자 양성의 중요한 약점은 교사들이 배운 이론적 교수법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데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될수 있는데로 교과준비에 직접적으로 응용될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보았다. 여기에 주어진 교수법 개요와 고제들은 부장이교사들을 지도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될수있는것들만

추려서 적었다. 그러나 부장이 이 교재와 교수법을 문자그대로 교사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한후에 교사들의 요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응용해야 할것이다. 수요일 저녁이나 혹은 정해진 준비 공부 시간에 교사들이 그 교수법에 의하여 공과를 응용할 수 있도록 부장은 미리 교육적 교수법과 제목들을 준비하여야한다. 여기에 주어진 몇가지 교수법을 여러 주일 동안 의논하고 응용하여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책에 제시된 교재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고 상식적인 원리를 청신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교사들이 서로 의논하며 더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다.
이 책은 지도자 양성에 책임을 진 사람은 물론 목사나 종교교육 지도자나 혹은 주일학교 부장에게 가치있는 재료가 될것이다.

제 1 장 교 안 작 성 을 위 한 제 의

제 1 절 교 사 개 량 을 위 하 여

매 주일마다 그들의 신앙 경험을 간증하고 성경을 좀더 의미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주일학교 교사들은 더 효과적이고 보람있는 교사가되기를 원하나 그

방법이 문제이다. 교회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모이고 여러기관이 설립되는등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점점 더 그리스도화 하려는데 있다. 자진해서 교회 교육사업을 돕고저 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점이 큰 문제가 된다.

교사의 네 가지 필수 분야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느냐 하는것이지만 적어도 목사, 종교교육 지도자 혹은 주일학교 부장이 전체적 교과과정을 편성하려고 할때 빼놓을 수 없는 네가지 분야가 있다.

1. 성경 지식

성경은 주일학교의 중심교재이다. 비록 기독교 교육의 제일되는 목적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알게하는데 끄치지 않는다고해도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사실을 익숙히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을것이다. 그런데 5년, 혹은 10년, 20년동안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에 나가는 사람도 성경의 내용과 뜻을 잘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이유중의 하나는 성경을 가르쳐도 그 내용을 철저히 알도록 지도하지 못하고 장년반에서

는 성경 공부를 일종의 예배식으로 삼기 때문이다. 두째이유로는 교사 자신들이 충분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공부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통일공과에는 매년 적어도 한 학기 동안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있지만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윤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을것이다. 다만 예수께서 당면했던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를 이해함으로서만 성경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또는 성경의 내용적 지식을 치중해서 공부한다해도 이사야나 예레미아 혹은 다른 대 선지자나 소 선지자의 대강한 윤곽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비록 가르치는 주목적이 성경의 내용을 알려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강조해야할 점은 사실이다. 교사들이 그러한 성경공부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자신이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탓이다. 이 말은 교사들에 대한 비평이 아니고 단지 교사들의 주목을 끌기위한말이다. 오직 한가지 계획이 교사들이 원하고 필요한 성경 지식을 줄수 없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수 많은 기회를 잘 이용해야할 것이다. 특별히 성경 공부를 위해 필요한 성경 주석이나 다른 참고서들이 집에서 연구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사들은 준비공과 시간에 철저한 성경 공부를 하도록 강조해야할것이

다. 한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이 " 지식을 위한 목적" 의 교수법을 사용하려고 할때 그 공부는 예배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내용과 뜻을 이해하려는 진지하고 조직적인 학자적인 공부가 될것이다.

2. 신 학

보통교사들은 "신학" 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렵게 생각한다."신학" 이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이고 혼란한 사상을 다루는 고차원적인 이론적인 연구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때 신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하면 그는 "신학은 학자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것이고 내가 가르치는데 신학을 다룰 수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정확하다고 볼 수없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의 신학이 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나 혹은 성경에 대한 신앙,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 그의 신학이 비록 조직적이 못되거나 또는 명확하게 진술되지 못한다해도 그가 하나님과 또 삶에 대해 어떤 신앙이 있다면 그는 신학을 갖고 있는것이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자기의 신학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아야할것이다.

주일학교교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것이 틀림없다. 그가 하나님과 예수, 성경과 신앙 또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할때마다 그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자기의 이야기가 성경의 계시의 완전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할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중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각 교파의 지도자 양성 코스를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할것이다. 여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책으로는 코너의 "구원의 복음" (W.T. The Gospel of Redemption) 과 웨일의 "기독교 교리" (John Whale, Chistian Doctrine) 을 들수 있다.

교역자들은 그들의 설교나 기도회 혹은 지도자 양성 코스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줄수 있는 귀한 기회를갖고 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설교를 통하여 들은 교리 사이에 근본적인 상극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일이 생길 경우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을 교사들의 잘못이라고는 할수 없고 교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볼수 있다. 어떤 공과가 진지한 신앙적 교리에 대해 논의할때 그 공과를 연구하기전에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여 그들이 가르쳐야 할 교재의 신학적 풀이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여야한다.

3. 연령에 따른 성격 (Age-group Characteistics)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연령에 따른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여야한다. 효과있는 교육은 피교육자의 흥미와 필요, 그리고 개인의 성격을 무시하고는 이루어질수 없다. 교사는 자기반 학생들이 그 연령에 따라 감지할수 있는 종교적 개념을 예리하게 알어 내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의 연령에 맞는 이해로서 깨닫지 못하는 종교적 개념을 가르치려고 애쓰게된다. 공과 준비 공부 시간에 연령별 성격에 대해서 공부할수 있다면 주일공과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교 수 법

여러가지 교수법을 숙련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의 중요한 뜻을 깊이 이해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태도를 고치고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 줄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넷째번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것이다.

교사 양성의 여러가지 시도

교사들의 필수 분야를 지적하거나 교사 양성의 필수적인 재료원을 발견해 내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나, 교사로 하여금

복음의 멧쎄지가 지성적으로 의미있게전해질 수 있는 효과적인 길로 인도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제시되는 11가지 교사 양성안중에 10가지는 간단히 설명하고 11번째는 계속적인 훈련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은 어떤 교회의 필요한 면을 채워줄수는 없다. 가장 좋은 훈련방법은 이 여러가지 방법을 여러 각도로 사용하는 길이다.

1. 견습 (Apprenticeships)

유망한 교사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선생과 같이 일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것이 계획하고 교실에서의 강의를 견학하고 필요하다 견습자는 교과를 편성할때 선생과 같이 강의후에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할수 있다.

2. 일요일 아침 공부

유망한몇몇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주일학교 시간에 몽여 3개월 내지 6개월동안 계속적으로 성경, 교리, 연령에 따른 성격 또는 교수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교사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연령에 따라 견학을 하며또 실제로 가르쳐 보기도한다.

3. 지도자 양성소

우리가잘 아는데로 각 교회별로 모이거나 혹은 도시, 지방별로 모이는것인데모든 교사들이 한 교실에 모여 연구하는 길도 있고 또는 각기 다른 흥미를 기준해서 여러반으로 갈라져서 연구할수도 있다.

4. 하 령 회

각교파 총회에서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갖는데 이곳에서는 잘 훈련받은 특별 지도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될것이다.

5. 자습 방법

어떤 교회나 교파에서는 교사들에게 특별 지도안내서를 주어 교사들이 각기 집에서 연구하도록 하기로한다. 이 방법의 약점으로는 교사들이 좀 더 경험있는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점이다.

6. 월 직원회 (Nunthly conference)

모든 주일학교 직원들이 매달 한번씩 모여 주로 등반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교사 지도를 위해 한 시간쯤 공부하기도 한다.

7. 견 학

교사들이 견학을 갔을때 자기가 지금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때 그 결과는 클것이다.

8. 고 문

어떤 교파에서는 교인중에 특별히 지도력이 있거나 혹은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 교사들에게 충고나 시범을 보이게 한다.

9. 심험 교실

이것은 주로 여름 한달 혹은 3달 동안 교사들이 직접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것인데 어떤 때는 주말마다 이런 실제 공부를 할수도 있다.

10. 강습회 혹은 수양회

어떤 교회에서는 신학기가 시작 하기전에 주말을 이용하여 모든 교사들이 모여 강습회나 수양회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주일학교 전체적인 문제점과 각 교사들의 개인적인 임무나 애로를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할 수 있다.

연속적인 학교

위의 모든 방법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주말 마다 모이는 교사회가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하여 교사들을 끊임없는 발전을 볼것이며 자기들이 가르치는 반면에 더 연구하고 배우고 개량해 나갈수 있다. 이 책은 이와같은 모임을 위해 재료와 교과를 제공하려는것이 그 목적이다.

교사들이 매주 마다 모여 교수법에 따라 그들의 교육방법을 개량해 나감과 동시에 성경 지식을 더 얻고 더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얻게될것이다. 특이한 교수법이 많은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사용하면 너무 단조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3개월내지 6개월 동안은 주말 마다 교수법을 연구 토론하고 그 다음 얼마동안은 성경 지식을 통달하려는데 중점을주며, 그 다음에는 주로 신학적 연구를 다루는것이 좋을것이다.

때를 따라 가르쳐야할 공과의 내용과 또는 각 교사들의 관심과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이 세가지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고려하고 그 점을강조 할때 교사들은 더 많은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교수 개량을 위한 시기

이 기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은 지도자가 교사들에게 어떤 특수한 교수법을 제시해준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 주일공과를 준비할때 제시된 교수법을 실제로 실습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이와같은 실습은 배운 교수법을 익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제부터 저자는 이 책에서 이와같은 연구를 위한 지도와 재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교사들은 여러가지 제목들중에서 그들의 필요에 가장 가까운것을 선택하여 편리한대로 그것을 나열해 볼것이다. 한가지 교수법을 준비공부 한 시간동안에 끝내기는 어려우니까 두 주일 혹은 3주일을 걸쳐 연구 의논해도 좋다. 그 교수법에 따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 고과에 이용하도록 할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를 적어 보겠다.

1. 지 도 자

교사들의 지도자는 부장인데 그의 책임이란 그 부의 조직과

경영을 맡아 보는것이다. 그 이외에 등급과 또 더 많은 사람이 성경공부에 참여 할수 있도록 지도 할 책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기 교사들의 교수법을 검토하고 더 좋은 교사가 되도록 지도 하는 것이다.

보통으로 부장은 그의 조직력, 행정력 혹은 촉진력으로 보아 선택되지만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의 교육방침을 승진시키려면 가장교육능력이있는 사람을 부장으로 선택 할 필요가 있다. 그부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부장이되어야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와같은 부장의 책임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였다. 일단 부장이 되면 " 나는 부장으로서의 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교사로서 가르치는일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오해한점은 부장은 교사보다 더 가르칠 기회가 많다는것을 모르는점이다. 부장은 교사들의 교사가 되어 그들의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부장이 교육적 재질을 갖지 못한다면 교사들중에서 책임자를 택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

부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계 획

부장은 수요일 저녁에 생각해 볼 교수법을 될수 있으면 간단하게 교사들에게 제시하여 교사들이 거기에 따라 다음 주일 공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할것이다. 시간을 잘 배정한다는것이 가장 어려운 일중의 하나인데 대개로 교사 준비시간이 30분이라면 지도자가 교수법을 제시할수 있는 시간은

7—8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22—23분은 교사들이 그 교수법을 공과 준비에 응용하는데써야 할것이다. 공과 준비 시간은 45분 내지 1 시간은 되어야한다. 여기에 2시간 배정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6:00 (오후)	식 사
6:30	전체 동반에 대하여
6:45	각 부별 등반에 대하여
7:00	각 부별 공과 준비
8:00	기도회

이 시간표를 따른다면 부장은 20—25분 동안 교수법을 제시해 줄수 있고 교사들은 35—40분 동안에 걸쳐 그 교수법을 응용하여 공과를 준비할 수 있다. 교수법을 공과에 응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 부장이 교수법을 제시 설명한 후에 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받고 그 다음 주일 공부때 사용할 여러가지 질문(학생들에게 물을 질문)을생각해 보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사들로 하여금 그 질문을 분석 하고 가능한 효과를 모색 하도록 도와 주어야할 것이다. "질의 문답식" 같은 교수법은 두 주일 혹은 그 이상에 걸쳐 연구 사용하는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첫째로, 부장이 만족한 교수법 시범을 보이려면 시간적인 제한때문에 한 주일 가지고는 충분치 못할것이고, 두째로, 교사들이 같은 교수법을 몇주일에 걸쳐 실습하고 가르친 후에야 그것이 자기의 경험의 일부분이되어 어느때 어느 경우에서든지 그 방법을 응용할수 있게 되때문이다.

기

이렇게 하자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수법을 제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까지 그 한 가지에 머물러 있어야한다. 공과 준비는 부장이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둘러 앉아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그들의 의견, 생각 그리고 경험을 교환하며 그 결과를 각기 기록하도록 해야할것이다. 물론 교사들은 준비 공부 시간전에 미리 준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하며, 그 모임의 수는 너무 크지 않고 각 교사가 지도자의 개인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한 부에 15—18명 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2—3 구룹으로 나누어 5—7명이 같이 연구하는것이 제일 알맞을것이다. 그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몇몇 교사들은 무시되어 버리고 마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교사들을 위하여 준비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장 점

고수법을 연구한후에 그것을 교과 준비에 응용하는 방법에는 몇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집중적인 고수법 연구를 통하여 교사들의 교육적 길을 향상 시키게 된다. 주일학교 교사 중에는 가정 주부도 있고 비서, 변호사, 농부, 사무원 그리고 노동자도 있다. 이들중의 대부분은 가르치는데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해보지 못했다. 그들은 효과적인 교사가 되고싶지만 그렇게 되기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 책에 실린 제안들은 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고사들이 공과 준비를 하는데 안내역을 한다. 셋째로, 그것은 고사들로 하여금 교육원리를 연구하는 기회를 얻게 할뿐 아니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공과를 준비하는데 그 원리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흔히 고사를 양성하는 수고가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일때가 많다. 지도자들이 교수법을 가르치려고 애썼다해도 그 공부가 실제 교육 경험에 관련되어 지지 않는 결과로 고사들이 그 이론을 공과 준비에 사용하기 힘들게 될 때는 그런 공부를 한 일이 없다는듯이 자기 하는데로 가르치고 만다. 여기에 제시된 안들은 고사로 하여금 지도자의 감독과 지도에 따라 그 원리를 자기 교과 준비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이와같은 폐단을 피한다. 넷째로, 이 원리는 배운 교수법을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교사들이 교수법을 배우는것은 미래에 사용 하기 위하여 저장 해 두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즉각적으로 공과 준비에 응용하고 일요일에 사용한다. 그 다음 수요일 저녁에는 전 주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분해 토의하고 그 다음 주일에 더 잘 하기 위하여 계획하게 된다. 다섯째, 공과 준비 시간은 고사들을 개량하는 학교라고 생각할때 고사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학교에 다니는 셈이다. 일 주일에 5일저녁마다 (금요일 저녁) 공과 준비 시간을 갖는 경우에는지도자들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제목들을 다 다루려고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된다.

공과 준비 3개월 기간에 다만 4가지 방법을 연구했다고해도 고사들이 배운것을 잘 이용하고 익혔다고하면 그것으로 만족해도

된다. 교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다 알려고 다른 교수법들을 공부한다는것은 추천할만한 일이다. 결국인 이 책에 주어진 교수법들과 또 그보다 더 많이 가르칠 시간이 있을테니 부장들은 서둘르지 말어야한다. 한 가지라도 완전히 익힌다는것을 목적으로 삼아야한다. 여섯째로, 이 원리 자체에는 배움에 도움이 되는 원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1) 교사들은 도움이 필요한것을 알게된다.—다음 주일에 그 공과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2) 그들은 흥미를 가진다— 좀더 발전하고 싶기때문에.

(3) 그들은 실제로 행함으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4) 그들은 배운것을 일요일 공과에 응용함으로서 실습할수 있는 기회를얻는다.

(5) 그들은 그 다음 수요일 저녁에 모여 복습하고 평가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제 2 절 교 안 작 성 의 단 계

조심성있게 준비한 교안작성은 효과적인 고육에 불가피하다. 여행자는 지도를 갖어야하고 건축자는 도안이 필요하고 화가에게는 스켓치가 필요한것처럼 교사에게는 교안작성이 필요불가결의것이다. 여기서는 교안작성의 단계를 처음에 다루어

보기로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교수법을 개량하려면 교안작성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후면에실려질 여러가지 교수법들은 여기에 제시 될 교안작성에 자연적으로 그리고 순리적으로 조화 될 것이다.

계획의 중요성

교안작성을 위한 계획과 준비를 왜 중요시하며 교사들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교안을 계획할 필요가 무엇인가 ? 가르친다는것은 극히 단순한 일이고 공과에는 충분한 재료가 들어있지 않은가 ? 왜 교사들은 그 공과에 실린 교재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혀 주어서는 안될까 ? 가르친다는것은 요리사가 음식이 묻은 접시를 씻어내면 되는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의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서 그 말씀이 생활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것이다. 이것은 그리 쉽거나 단순한것이 아니고 교사들의 임무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것이며 교사들은 누구나 준비와 생활 자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교사는 하나님과 학생들앞에 준비하다가 그만둔 교재를 제공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가르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 해야할것이다. 교사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실린 내용을 대강 익힌후

종이조각에 몇자 적거나 혹은 공과 가장자리에 몇가지 중요한 것을 기록하여 그것을 보고 가르치는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교사의 과업은 이와같이 미비한 준비를 하는것 보다 훨씬 더 성스러운것이며 학생들의 생활은 훨씬 더 중요하므로 교재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애끼지 말어야 한다.

공과 준비는 교사들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데 즉 교사로 하여금 공과중에 사용할 것과 사용 하지 않을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며 일요일 아침 학생들 앞에 설때 신념을 갖게 해주고 교사와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고 의미없는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기도 한다. 또한 교사는 공과 준비를 통하여 각 부문에 얼마간의 시간을 들일 수 있는지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공과 준비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학생들의흥미에 따라 임시적으로 공과 이외의것을 가르칠수도 있다.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은 세운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어떤 문제를 놓고 더 시간을 들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던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목적 성취에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따라 교재를 수정하고 어떤때는 완전히 무시해 버릴수도 있어야한다.

실제적인 도움

교사가 교재를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점이 몇가지 있다.

(1) 준비시간—사람은 누구나 바쁘지만 바쁜 사람일수록 한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을 짜내는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아마 바쁜 사람일수록 그들의 활동을 계획할 줄 알기때문일것이다. 바쁜 생활을 하는 고사는 주간에 준비 공과 시간을정하여 중요한 친구를 만날 약속을 조심스럽고 신용있게 지키는것처럼 그 시간을 지켜 나가야 한다. 만일 수요일 저녁에 공과 준비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전에 꼭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데 그 첫째 이유로는 교재를 미리 읽어보지 않는다면 공과 준비시간에 가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 할 것이며 둘째로는, 준비없는 고사는 그 모임에서 갖는 토론에 공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사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학기 교재를 읽어보고 가르쳐야할 공과를 익숙히 안후에 수요일 저녁 공과 준비시간에 결론적인 준비를 해야한다.

(2) 준비 장소—어떤 고사들은 일정한 준비 장소를 정하는 것이 퍽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성경, 공과, 학생들의 명단, 주석 혹은 다른 참고 서적들을 그곳에 배치해 두면 언제나 필요할때 쓸수 있다.

(3) 준비 재료—교사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재료로는 첫째로 성경인데 다른 현대식 번역판을 하나 더 갖는것이 도움이 될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사용과 학생용 공과이다. 또 자기반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왔는지도 알아야하며 매년 통일 공과

의 기준에따라 만든 다른 참고서적도 추천할만하다. (Broad-man 출판사에서 발행한 주석과 Rozell 의 Complete Lessons이 가장 좋은것중에 속한다)

공과는 학생들의 필요한 흥미를 기준해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줄수 있는 장부도 필요할것이다. (주석으로는 Dummelow 의 a Commeatary on the whole Bible 과 Jamsson, Fausset, Brown 의 a Commentary, Critio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과 Westminater Dictionary of the Bible 과 Hasting 의 Dictionory of the Bible, 7th Westminster Histonical atlas to the Bible 과 같은 성경 지도책이 도움이 될것이다)

배후 준비

(1) 개인적 준비ㅡ교사가 교재를 준비할때 그 자신의 영적 생활 자세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가 준비할때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시작하여야한다.교사 혼자서 가르치는것이 아니다. 성신이 그의 선생이며 지도자가 되어 주지만 교사는 성신이 만일 그가 피곤하고 마음이 산란하거나 혹은 그날의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어드리기 어렵다. 교재 준비는 성스러운 시간인줄 알고 가장 깊은 경의심을 가지고 시작해야할것이다.

(2) 성경 연구— 교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사에 따라 다른데 누구든지 자기에게 제일 도움이되는 방법을 사용 할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암시를 주겠는데 그 준비단계가 실제로는 서로 구별된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단지 교사로 하여금 그 하나 하나를 주시하기 위하여 분류해 놓았다.

첫째로, 공과에 쓰여진 성경 구절을 읽는데, 처음 읽을때 그 성경이 자기에게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가 성경 구절을 읽을때 자기 자신의 영적 풍부함을 위하여 읽어야하며 그 구절이 자신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며 그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것인지, 그가 아직도 직면하고 있는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주석을 이용하여 그 구절이 뜻하는 것을 연구하여야 한다.공과에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보다 그 구절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으려는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잘 알지 못하든 단어나 장소를 성경 사전과 성경 지도를 찾아 알어보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한후에 교사를 위한 공과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서 그 구절이 강조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야 한다.

(3) 학생들에 대한 고려—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를 얻은후에 교사는

자기반 학생들을 표준하여 그 학생들의 특별한 요구와 필요에따라 그 공과를 적응시켜야한다. 즉 자기반 학생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안다는것으로 만족 할것이 아니라 그들 각 개인이 이 공과에서 무엇을 배워 얻어야할 지를 고려해야 하며, 교사가 학생들을 고려하고 성경 구절의 근본적인 뜻을 해득한 후에는 그 공과에서 가르쳐야할 자신의 목적을 정 할수 있게 된다.

교안 개요

교사들은 교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초안이 있느냐고 흔히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교사수가 많은것처럼 교안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즉 한가지 초안은 재료의 내용과 조직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초안은 학생들의 필요를 강조하든가 혹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를 강조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안개요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적은 학생들은 활동을 중심으로 배우고 큰 학생들은 공부시간전에 간단한 활동을 하도록 할수 있다. 또는 교사의 가르치는 목적에 따라 그 교안개요가 다를 수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기대한다든가 또는 학생들의 지식을 더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르친다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초안을 작성할때 여기에 소개된 방법이나 혹은

자기가 구상해 낸 어떤 방법 한 가지만을 기반으로 해야된다고 강조할 수는 없다. 초안을작성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단계가 있다.

목 적 선 정 — 교사는 자기가 추구하는 결과를 기준해서 지식을 위한목적이거나 영감 혹은 반응을 위한 목적을 세우되 그 목적은 자기가 성취 할 수 있으리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과 전체의 목적, 혹은 학기 목적, 단위목적, 공과목적.

성경공부의 흥미보장—처음 부터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의미 있고 진지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계획하여야 한다.

교과의 발전 —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배운 일반적인 기독교적 이상을 수긍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을 무슨 재료를 사용하며 가르쳐야 할지 계획하여야할것이다.

공과를 개인에 맞도록—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영적 이상에 자신을 솔직하게 비추어 반성할수 있도록 의미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실천할 수 있도록—공과를 배우므로 고치거나 혹은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까지 이끌어 나아가야한다.

교사들이 교안개요를 작성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초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천 목적을 위한 교과 편성

1. 학기 목적
2. 단위 목적
3. 공과 목적
4. 성경 공부의 흥미 보장
   (1) 흥미 보장
   (2) 전 위
   (3) 성경을 읽을때 무엇을 주의해 보아야 한다.
5. 교과의 발전
6. 공과를 개인에 맞도록
7. 실천할 수 있도록

이와같은 초안을 종이에 프린트하여 교사들이 수요일 저녁 준비 공과 시간에 모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교사들은 같이 준비하면서 그들이 사용 할 중요한점, 예화 혹은 질문등을 적어서 그 다음 일요일에 가르칠 초안을 구성해 놓을 수 있게 된다.

목 적 선 정

이 교안개요의 각 단계를 이 남은 부분과 다음 장에서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 현대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신중한 약점은 그 목적이 희미한 것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된다든가 또는 어떤 결과가 생겨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기때문에 별로 배울것이없게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뚜렷한 공과목적을 생각지 못했기때문이다. 목적을 정한다는것이 고안개요중에 제일 어려운 점인데 많은 교사들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이 갖어야할 효과성을 잃게된다. 목적을 정하기 위하여는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구절의 뜻에서 목적을 찾어 내어야하며 또한 자기반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목적이 되어야한다. 공과를 쓴 사람은 수천명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쓰기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목적을 제시할 수 밖에 없으니까 교사자신이 자기반의 특별한 필요에 맞도록 그 일반적인 목적을 응용하여야한다. 첫째로, 목적은 기억하기 쉬울만치 간단해야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공과를 배우거나 혹은 그 공과의 결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려는것이 교사의 가르치는 목적인데 교사자신이 암기하기에도 너무 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둘째로, 목적은 기록할 수 있으리만치 명확해야한다. 그뜻은 설명할 수 조차 없이 막연하고 희미한 목적을정한다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게될것이다.

셋째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리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정하는 목적은 너무 광범위한 경우가 있는데 가르칠 시간이 30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어야하며 주어진 시간내에 최소한도의 효과를 얻도록 범위를 좁혀야한다. 이점에 대하여는 교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할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학기 목적

교사는 13주간동안 자기반 학생들의 생각하는 방향을 지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한학기 공과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필요가있다. 그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면 그가 13주간동안 얻으려고하는 효과는 희미해지고 만다. 흔히 교사들은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무엇을 성취해 보겠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가르친다는것이 귀찮고 억지로 끌려하게 되는상태에 이르므로 무엇을 이루었다는 기쁨을 느낄수 없게된다. 학기말에 교사자신이 "내가 이번학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생활에 어떤 공헌을 했나 ? 하고 자문할때 별로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만족하려고 하는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될까 ? 그 이유는 교사가 각 공과를 개별적으로 가르쳤을뿐 지난 주일의 공과나 다음 주일에 배울 공과를 이번 주일공과와 전연 연결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가 학기가 시작하기전에 그 학기의 목적을 뚜렷이 정해놓고 13주간 동안 매주일

마다 그 목적에 비추어 가르쳐 나갔다면 자기의 새운 목적을 성취할수 있는 좋고 기회를 얻게 될것이다. 어떤 교사들은 지난 주일 공과를 간단히 복습해서 각공과를연결시키려 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수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길때 학생들로 하여금 지난 주간의 공과나 혹은 그전의 공과를 연상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 하는것이 기계적으로 전주간의 공과를 복습하는것 보다 더 신선하고 의미 있는 방법이 될것이다.

다음에 장년반을 위한 학기 목적의 예를 든다면, "나의 이번학기 목적은 나의 반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곳에서 그들의 기독교적 신앙을 표시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1)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2) 그들의 사고중에서

(3) 그들의 사회 생활에서

여기에 교사가 이루고저하는 특별한 목적 세가지를 명기했다. (단위 목적을 세울때는 이보다 더 구체적일수 있다) 교사가 학기초에 이와같은 뚜렷한 계획을 세울것 같으면 매 학과를 준비 할때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위하여 노력할수 있으며 학기말에 가서는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발견할수있게될것이다.

단위 목적

단위 목적이란 성격상 같은 내용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학과를 위해 세운 목적을말한다. 교사가 그 학기의 학과를 준비하려고 할때 어떤 학과들은 같은 목적을위해 세워진것을 알게되는데 위에 든 학기목적을 기준해서 가정 생활과 관계된 제1단위의 목적을 세운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 제단을 쌓게 하자" 라고 할수 있고 사업에 관계된 제2단위의 목적을 "사업적 계약을 하는 책상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자" 라고 허거나 혹은 사회생활과관련된 제3단위의 목적을 "우리 동리에 특권이

적은 사람들을 도와 주도록 하자" 또는 "동리의 어떤 사회악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자 "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교사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반학생들의 생활에서 똑똑히 알수 있게 될것이다. 이와같은 학기목적 혹은 단위목적은 교사로하여금 자기의 교육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같은 뚜렷한 목적을 두어서 얻는 두째번 혜택은 교사가 가르칠때 반복을 할수 있다. 반복은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리이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가르쳐 주어서 되는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생활은 반복을 통해서 배워진다. 중요한 영적 진리는 단한가지 공과를 통해 배워지기가 어렵고 한가지 진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고과를 한 단위로묶어서 그뜻과 표현을 반복함으로서 얻어질수 있다는것을 교사들은 알어야할것이다. 각 공과는 강조하는점과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배우는 진리는 같을것이고 교사 자신이 이러한 단위 목적을 세움으로 인하여 생활과 배움에 있어서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기회를 가질수 있을것이다.

교과 목적

일반적으로 교사가 가르칠때는 (1) 지식을 배워주고 (2)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3) 그리고 행동의 반응을 보려는 목적에서 이다. 어떤 교사들은 한 공과를 가르칠때 이 세가지목적을 다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좀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만일 교사가 성경 지식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혹은 학생들의 태도를 지도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신자적인 생활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중의 한가지 만을 정하여 거기에 집념해야 될것이다. 성경 지식을 위한 목적을 세울때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지식을깨닫고 총달할수 있도록 가르칠것이고 학생들에게 신자로서의 신중한 생활 태도를 가르치려고 할때는 영감을 얻는 방법을 사용해야하며, 또는 학생들의 생활에 어떤 신자적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행동적 반응 목적을 세워야할것이다. 세가지 목적을 한번에 다 이루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세가지 중에 한가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말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주일학교에 다녔어도 성경의 조직적인 지식을 가진사람이 극히 드물고 그들이 배운 신자의 이상을 생활속에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그들이 공과를 즐기지 않았다거나 또는 배운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생활속에 기독교인의 복음을 적당하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세가지 다른 목적에 대해서 예를들어 설명하면 좀더 자세히 이해 할수 있게 될것이다.

지식 목적에 따른 교과란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의 어떤 부분을 진지하고 조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잘 알게 되도록 인도하는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 멸망 까지 이른 사건들을배운다" 혹은 "아모스서의 중요한 뜻을 배운다" 라고 할 수 있다. 영감을 얻기 위한 교과란 교사가 학생들로하여금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좀더 깊이 깨닫게 하고 어떤 기독교의 이상이나 태도를 받아 들이도록 하는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것을 더 깊이 깨닫게한다" 라든가 혹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배움으로서 좀더 깊은 신앙을얻게 한다" 라고 할수 있다. 행동적 반응을 얻기위한 교과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신자적 행동을 보여주도록 하자는것인데 즉 "누가 불공평한 행동을할때 확목시키는 사람이 되자" 라든가 혹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매 주일 사람들을 방문하는데 참예하도록 하라" 라고 목표를 세울수 있다. 이 세가지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나 각기 독특한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교사가 주어진 공과를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에 따라 가르친다 해도 학생들이 영감을 얻을수가 있으나, 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재료를 배워 아는데 있다. 만일 행동 반응을 위한 목적을 세운다면 반응은 반듯이 지식을 토대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것은 사실이나 다음의 두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어야 한다.

첫째, 여기에 사용되는 지식은 성경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조직적으로 배우는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뿐이다. 이 지식은 성경의 한부분에서가 아니라 여러곳에서 뽑아 낼수 있다.

둘째로, 교사가 시도하는 점은 지식을 얻는데 있지 않고 반응을 얻으려는데 있기 때문에 여기의 지식은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다 또한 행동적 반응을 얻으려는 목적을둘때 영감은 얻을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생활에서 그러한 반응을 확실히 볼수 있을때까지는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수 없다. 교사가 이와같은 세가지 목적을 분별할수 있어야하며 한가지 교과에서 한가지 목적만을 사용하여야한다. 한가지 목적을 사용하기로결정할때 그것이 교과와 일치하는지 분별할줄알어야한다. 그것을 분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가지 질문을 다음에 들어 보다.

(1) 나의 주목적이 사건을 가르치는데 있나 ? 지식을 주고 성경 구절의 뜻을 철저히 배우도록 하는데 있나 ? 그렇다면 지식 목적을 택하겠다.

(2) 나의 주목적이 어떤면을 좀더 깊이 알도록 하는데 있나 ? 어떤 일반적인 자세를 가르치려는데 있나 ? 그렇다면 나는 영감을 얻기위한 목적을 택하겠다.

(3) 나의 주목적이 학생들의 생활가운데 어떤 명확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데 있나 ? 그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하나 ? 어떻게 표현할수 있을까 ? 그렇다면 나는 행동반응을위한 목적을 택하겠다.

앞에 이야기한대로, 주일학교육의 중요한 약점중의 하나는 교사의 목적이 너무나 막연하다는점이다. 지식을 위한 목적은 학생들이 배워야된다고 생각되는 지식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지만 영감을 위한 목적은 일반적인 이상이나 태도를 다루는것이기 때문에 좀더 보편적이 될것이다. 행동적 반응을 얻기 위한 목적은 분명하고 현저한 말로 진술 되어야 한다.

교사가 행동적 반응을 위한 목적을 세우려고 할때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저 보는것이 좋다.

(1) 나는 학생들이 무엇을하기를 원하나 ?

(2) 내가 바라는 반응을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할수 있을까 ?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가운데 자기들이 배운 어떤 기독교적 이상을실제로 나타내지 못한점을 지적해 내서 학생들의 양심에 비추어 보게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서로 자기들의 생각 경험 그리고 어려운 점들을 토론하게 하고 교사가 그 문제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어 성신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서 생활과 체기 변화를 일으킬수 있도록 할것이다.

각 학생들의 필요가 다름에 따라 교사도 여러가지의 목적을 준비해야 될것도 사실이나 이것도 극히구체적이어야한다. 다시 말해두는데 목적을 잡한다는것이 교사들이 그과를 준비하는중에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다. 목적이 막연하고 희미

할수 밖에 없다.

고안 준비에 의 안내

이점은 복장이 고사들로 하여금 다음 주일 공과를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지도 해야 하는데 다음의 몇가지 질문이 부장에게 도움이 될것이다.

(1) 고사들이 고과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았는가? 혹은 이점에 있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

(2) 다음 주일 고과를 언제 준비하기 시작 하는가 ? 그들이 수요일 준비공무 시간에 오기전에 공부해야한다.

(3) 그들이 공부하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 두었는가 ? 이렇게 하는것이 도움이 될것인가 ,

(4) 고과 준비하는데 어떤 재료들이 도움이 될것인가 ? 주석, 성경 사전, 성경지도 혹은 다른 참고 서적들이 필요한가

(5) 고과준비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가 ?

(6) 무슨고안을 사용하는가 ? 이책에 실린 고안이 도움이되는가? 좀 개량할필요가 있는가 ? 고사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사용할수 있도록 프린트해야될까 ?

학기목적이나 단위목적을 그런 학기 말에 정해 놓음으로서 고사들이 그다음 학기 교재를 준비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와같은 특별한 일은 수요일 저녁 이외의 어떤 시간을 이용하여 정하는것이 더욱 좋을것이다.

(7) 다음학기 교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 각교사들은 자신들이 정한 목적을 기록해 놓아야한다.

가. 기억할만큼 간단한가 ?

나. 기록할만큼 명확한가 ?

다. 성취할만큼 구체적인가 ?

(8) 다음학기교재의 단위 목적은 무엇인가 ?

각교사들은 자기들이 적어 놓은 단위 목적을 평가해 보아야한다.

가. 기억할만큼 간단한가 ?

나. 기록할만큼 명확한가 ?

다. 성취할만큼 구체적인가 ?

(9) 교사가 다음 주일 교재를 위해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

자기의 정한 목적을 기록해 두어야한다.

가. 지식 목적인가 ? 교사의 주목적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기 위한것인가 ?

나. 영감을 얻기 위한 목적인가 ? 교사의 주목적이 학생들의 어떤 신자적 태도나 이상을 강조해 주려는 것인가 ?

다. 행동적 반응을 위한 목적인가 ? 교사의 주목적이 학생들로하여금 그들의 생활가운데 아떤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도록 하려는것인가 ?

라. 기억할만큼 간단한가 ?

마. 기록할만큼 명확한가?

바. 성취할만큼 구체적인가?

만일 교사가 행동적 반응을 얻기위한 목적을 세운다면 다음의 ㄷ 두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는것이 좋다.

사. 학생들이 무엇을 하기를원하는가 ?

아. 그들의 결심을 어떻게 표현할수 있을까 ?

각 교사가 그의 목적을 정하고 평가한후에 남어지 고재를 준비하도록 하여야한다.

제 3 절 행 동 반 응 을 위 한 고 육

전장에서 고과준비의 제일단계인 목적 선정하는 것을 토론했고 이제는 행동의 반응을 위한 목적을 세웠을때 고재준비하는 네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보기토 한다.

목적 있는 성경 공부

고사가 그의 목적을 선정해 놓은 후에는 성경을그 목적에 맞게 공부할수있도록 준비하여야하는데 이 부분을 서론이라고도 본다. 여기서는 성경을 고재발전에 어떻게 사용하여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처음 성경 구절을 읽을때 학생들이 어떻게하여야 의미있는 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지도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공부시간이 반넘도록 성경을 읽지않게 될때도 있고 혹은 공부시간 처음에 한구절읽고는 마지막에 남은 구절을 읽는 경우도 있으나, 언제 어떻게 읽든지 간에 어떤 목적을가지고 성경을 읽고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수 있어야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주일마다 틀에 박힌 공부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출석을 부르고 간단히 기도한후에 어느 학생이 성경을 읽도록한다. 여기까지 교사는 가르친다는 의식 없이 진행하고 학생이나 교사가 성경을 읽든지 한다. 이렇게 성경을 의미없이 사용하는 잘못과 책임은 교사 자신에게 있다 교사가 주의해야할점은 "성경 읽는것을"공부시간 처음에 갖는 순서의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에게 성경 읽을 준비를 시킨다는뜻은 두엇인가 ? 학생들의 준비—성경을 읽기전에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충동을 주고 그 읽는 목적을제시해 주어야한다. 즉 교사가 서론을 신중하게 계획해 놓고 질문과 설명 혹은 토론 문제를 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충동시켜야한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일으켜 줌으로서 학생들 스스로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어디 읽어보자" 라고 할수 있도록 교사가 잘 지도해야한다. 이렇게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만일 고사가 학생들에게 깊은 흥미를 주려고 하면 그 학생들의 보통 흥미와 관련이 있는 어떤것부터 시작 해야한다. 사람들은 연령의 차이 없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으나 교사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할것이다. 교사가 공부시간 제일처음에 이야기하는것이 한시간내내 이야기하는것중에 제일 중요한것이어서 제일처음에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켜서 의욕을 얻게하지 못한다면 한시간동안 가르쳐도 소용이없게 된다. 그러므로 교재를 준비할때 그가 처음에 할 이야기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말로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소년부 교사가 공부를 시작할때 "오늘은 미가 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학생들은 흥분하거나 무엇을 기대하는 기분이 들지 않게 될것이다. 만일 교사가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나 ?" 라는 질문으로 공부를 시작 한다면 학생들의 주의를 더 집중시킬수 있을것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벌을 받거나 무슨일이 생길까 염려 스러워서 거짓말을 하지요" 라고 답을 한다면 그말에 다시 질문을 붙여서 " 벌받지 않으려고 거짓말 하는것이 옳은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자. 학생들의 의견을 잠깐 들은후에, 교사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람이 이와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제 성경을 펴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게 될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싶도록 만들려면 학생들과 같은 소리로 성경을 읽는것이 더욱 효과적일것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하려고 설명이나 혹은 어떤 다른방법을 사용할수도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공부에 참여하게될때 토론에 더욱 흥미를갖게 될것이다 성경을 읽을때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려고 하는 서론적인 말은 흥미를 돋우는데서 끝이는것이 아니라 그 교재의 발전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얻을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를테면 학생들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갖었든 친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정치담 또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함으로 흥미를 얻을수는 있으나 교사가 준비한 교재의 목적과는관련이없는것이되고 말것이다. 서론에서 학생들의 흥미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되는 변화가 있어야한다. 이런 변화가 없이는 학생들은 의미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게될것이다. 교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있는 농구 시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켰다해도 거기에서 발전하여 성경을 읽을수있게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농구 시합 이야기를 끝이고 말것이다.

위에 이야기 한대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사람은 이와 같은 문제에 답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른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성경을 읽기위한 준비를 할때 다음과같은 세가지 점을 명심해야한다.

(1) 그의 서론은 학생들의 흥미에맞는것이 되어야한다.

(2) 그의 서론은 교재 발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의 서론은 성경을 읽을수 있는 자연적인 변화를 이룰수 있어야한다.

주목할점

교사가 학생들의 성경 읽을 흥미를 돋구어 주고 성경을 읽기전에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하여야될 어떤 특별한 문제를 주어야하는데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점에 초심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론의 첫부분이 성경 공부의 목적을 제시해주는것이라면 그 둘째 부분은 성경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것이된다. 성경을 읽을때 그 읽는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않는다면 학생들의 마음은 방황하게될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성경을 읽는것이 더욱 의미있게 될것이고 듣는데 그치지않고 그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게 될것이다.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칠때 주일마다꼭 같은 방법을 사용할것이 아니라 어떤때는 질문을 사용하고 어떤때는 그 구절의 요점을 찾게하고 또는 그 구절이 강조하는점을적어 보도록 할것이다.교사의 질문은 학생들의 연령에 맞도록 되어야하며 학생들의 지식 수준보다 낮어도 안되고 또는 학생들이 답을 찾을수 없으리 만큼 어려워서도 안된다.

성경 읽기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읽는 목적과 무엇을 알아보아야하는지 다 준비가 된후에 성경을 읽어야한다. 성경은 경우에 따라 교사가 읽든지 또는 학생들이 읽든지 하되 누가 읽든지 이해와 의미를 찾아 읽어야한다. 어떤 성경 구절은 끼 닫지 못하고 띠엄 띠엄 읽는 경우가있다. 학생을 시켜 읽을 경우에는 읽기전에 연습을 시켜야한다.

질의 응답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찾아 보라고 질문해 놓고 그 답을 묻지않아서는안된다. 질문을 조직적으로 선택해 놓은후에 그 답을 의논하면서 자연적으로 공과를 발전시켜야한다. 독적있는 성경 공부를 위한 서론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몇가지 제의를 해본다면 첫 째, 될수 있는대로 격려하는 서론을 만들어야한다.
셋 째, 서론에서 교사의 임무는 그 구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는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내도록 인도하는데 있다. 넷 째, 서론은 너무 길고 뒤섞인 문장이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교재를 준비할때 서론의 단어 하나 하나 까지 정확하게 준비하도록 하여야한다. 즉, 자기가 공부 시작할때 할 이야기를 정확하게 계획해 놓아야 하며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예상해 놓아야한다.

교과의 발전

교과의 발전이란 공과의 중심 부분을 의미하며 시간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시간의 중요부분을 말한다.

발전의 목적

교과의 발전을 위해서 교사가 추구하는점은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성경 구절의 뜻을 깨닫게하려는데 있다.
하나님이 그 구절을 통해 말씀하는것이 무엇인가 ?
그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교사가 얼마나 오랜시간을써야하느냐는 문제는 교사가 가진 그 교재의 목적에 따라 결정될것이다.
둘째, 학생들로하여금 자기가 독적해둔 일반적인 기독교 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하려는데있다. 교사의 목적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원리에 따른 어떤 특별한 반응을 얻기원한것이라면 이 원리의 뜻이 뚜렷이 나타나야한다. 혹은 교사의목적 " 봉사, 용서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상이라면 학생들이 그뜻하는바를 알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야한다.
셋 째, 학생들로하여금 이 기독교적 이상을 받아 들이고 거기에 종사할수 있도록 인도 하려는데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일을 꼭 해야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한 결심이 없어서 아무런 변화를이루지 못하는경우가 많다.

사용될 성경적 내용

학생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닌것을 교사들은 곳 깨닫게 될것이다. 교과 발전에서 사용될 성경적내용은 그 교재의 목적과 일치된것이 되어야하는데 성경구절에 나타난 내용중에 어떤점을 더 강조해야되는지는 교사가 자기의 교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재를 가르친다는것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할수 있는점을 강조해야될것이다. 그 교재의 목적에 따라 어떤내용은 빼 놓을수도 있다. 어떤 교사들은 공과에 주어진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 공과의 목적이 특별한 행동의 반응을 위한것이라면 모든 내용을 다 취급할수가 없으므로 그 공과 목적에 합치될만한것만 추려내어야한다. 학생들에게 그 성경구절에 나타난 여러가지 진리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한가지 만을 지적하여 그것을 깨닫고 받아 들이고 그 진리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내용의 진리

교사가 사용하는 성경적 내용과 강조 되어야할점들은 논리에 따르기보다는심리적인 면으로 정리되어야하는데 즉 내용을 기준하기보다는 학생을 표준해서 결정되어야하며 교재의 논리적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재 목적을 성취할수 있도록 만들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최근의통일공과중에 이런제목이 있다.

"룻, 환영 받은 외국인"

룻 2:8—13

4:13—17 절이며

그 개요는 이와같다.

1. 고마운신사 2:8—9
2. 감사에 넘친손님 2:10
3. 너그러운 태도 2:11—12
4. 정중한 요청 2:13
5. 영광스러운 추수 4:13, 17

이상은 우수하고 논리적인 성경적 내용의 개요가 될지는 몰라도 교사의 목적을 성취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교사가 자기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 목적을 성취할수 있도록 교재를 발전시켜야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맨 처음에 읽을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구절은 빼놓고 한두구절만 강조해서 읽을수도 있다.

혹은 공과에 실린 성경 구절중에 한두절을 읽고는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시키도록 해도 좋다.

내용은 목적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교재 독적란이 교사가 바라는것임을 기억하고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꾸며져야한다.

방법

그 교사는 그가 사용할 내용이나 혹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들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할것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그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수 있을까 ?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 내용만큼 중요한데 내용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 내용을 가르칠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일수 밖에 없다. 교재 발전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에 참여해서 이야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들이 공과에서 무엇을 알게되었다는 이야기나혹은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방법은 장년반,청년반,혹은 청소년반에게는 빈약한방법이다. 잘가르친다는것은 교사와 학생이 경험과 생각을 교환하는것을 말하므로 교사는 공부시간에 혼자 이야기하고싶은유혹을이겨야한다. 학생과교사, 또는 학생과학생이 서로 성경적내용과의견을 교환할때 성신께서학생과 교사모두에게 그뜻을 이해할수 있는 기회를 줄것이다.

교과의 개인적응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기독교 이상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이상에 더 깊이 따르도록 인도한후에는 그들의 일상 생활에 적응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이 배운 영적인 진리가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생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일반적인 원리를 배운후에는 그 원리가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될지 알지 못하고 지나 버리고 말았다. 장년반 교사가 "우리는 우리의 사업관계에서 더욱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반학생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것이 사업관계에서 기독교인 다운지는 알지 못한다. 물론 그들의 거래에 정직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것은 사실이나 이와같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떻게 하여야 그들의 사업에서 착실한 기독교인이 될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실제 생활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거나 혹은 그 경우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교사가 어떤 경우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너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겠니?" 라고 질문할때 그 경우에 기독교인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상통하는 현실적인 경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꼭 실제로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것은 아니고 교사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 있는 가정을 세워놓고 학생들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이와같은 문제가 생길때 가장 평범한 인간의 욕구에 따라 일어날 행동과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취해질 행동 두가지가 전제 된다는것을 알어야 한다. 셋째로, 실 생활의 예는 교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즉 교사의 목적이 용서한다는데 대해서라면 그 생활의 문제는 용서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는 교사의 목적이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면 실제 생활의 예는 인간관계를 포함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생활의 예를 들어 기독그인으로서의 취할 태도를 발견함으로서 학생들은 일반적인 영적이상이 어떻게 개인의 생활에 관계가 깊은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또한 교과를 좀더 개인적으로 발전 시킬수 있는 극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다. 좀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교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수도 있다. "이 영적인 진리가 학생들의 생활에 적응 될수 있는 실생활의 예는 무엇인가?" 혹은 "이와같은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것인가?" 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위하여 여러가지 다른 순서에 따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실 천

이것은 전 교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해 왔지만 이제는

배운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실제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단계 이다. 여기에서 이야기 만으로 그치는 공과의 차이가 나타 난다. 고사가 행동적 반응을 얻기위한 목적을 가졌을때만 이와같은 행동으로의 전가를 할수 있는데 바로 이점이 영감을 위한 교재와 행동적 반응을 위한 교재의 차이점이다. 영감을 위한 교재는 어떤태도를 좀더 심오하게 하자는데 있고 행동의 결정적인 반응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 배움으로 좀더 깊은 신앙에 이르도록 하자" 라는 영감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부는 어떤 특별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이 주간동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할수 있도록 하자" 라는 행동의 반응을 위한 목적을 세울때는 공과에서 행동으로의 전가가 요구 된다.

교사의 계획 — 대부분의 교사들은 "우리 모두 이렇게 하도록 하자" 라고 일반적인 권고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에 요구되는 반응을 얻지 못하고 만다.

공과에서 행동으로의 전가에는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어떤일을 하고 싶은 결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학생들이 정한 어떤 반응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사가 교재를 준비할때 이 세가지 단계를 주의깊게 계획 하여야

하며, 혹 고사가 계획하지 않았든 다른 일들을 학생들이 정할 경우도 있는것이 사실인데 이런 경우에도 고사가 미리 정해 놓은 계획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가 단순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진리에 따른 실제적 행동을 결정짓고 실천할수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학생들의 생활속에 이런 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의견 — 비록 교사가 정해둔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학생들 자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어야 한다.

종교란 절대적으로 개인에 따른 문제이기때문에 교사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두가지 점은, 학생들 자신이 어떤 반응을 자유로 취해야 된다는 점, 즉 학생들 자신이 그들의 결심과 요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자유로운 표현이 되어야 하며, 또 한가지는 그러한 반응은 영적인 동기에 근거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학생들 전체나 혹은 개인에게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가해서는 안되며, 둘째로는, 아무도 무안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반응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와 꼭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꼭 같은 태도와 흥미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학생이 바로 고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달의 방법 — 교사나 학생들에 의하여 결정된 전달의 방법은 기독교인의 생활 자체만큼 다양적이고 그것이 단지 교사와 학생들의 견해에 따라서 한정될 것이다. 종종 학생들이 정한 전달은 너무 얕고 피상적이라는 비평이 생기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좀더 깊이 표현할줄 모르기 때문이다.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자는 결심은 쉽게 실천 될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사회악을 일소 하자는 결심 같은것은 그 성질 상으로보아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실천 방법을 결정하는데도 공부 시간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음으로 과외 시간에 더 의논해야 될 경우도 있다. 또는 학생 전체가 어떤 계획을 하는 경우도있고 가정 제단을 쌓기 시작하자는 결정을 학생 전체가 정해 놓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결정해서 실천할수도 있다.

교사의 추구 — 교사는 자기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로는 교사가 학생들을 탐지하려는 이유에서가 아니고 학생들의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르침으로서 어떤 좋은 일을 한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만족 할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의 결과를 우연한 기회에 맡겨 둘수는 없다. 둘째로, 이러한 추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요일 아침에 배운데 따라 어떤

일을 하도록 교사가 기대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의 교재에 어떤 행동적 반응을 요구하는 점이 있을때 그 다음주일에 학생들에게 거기에 따른 무슨일을 했는지, 질문하면 학생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교사의 질문을 듣고 오히려 놀라게 된다. 이점은 바로 현대 주일학교 교육의 약점을 보여 준다. 학생들은 그들이 일요일 아침에 배운 공부에 따라 어떤 특별하고 결정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는것 같다. 그들은 교실에 앉아서 듣고 교사의 이야기에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기대하지는 않는것 같다. 물론 듣기만 하는 것은 신앙적 결의를 행동에 나타내는것 보다 훨씬 더 쉬운일은 사실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의 연령과 그 요구되는 반응에 기준해서 그의 목적을 계획해야 한다. 만일 요구되는 반응이 어떤 설계에 있다면 그 학생들이 그 설계에 따라 활동하는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며, 중등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일요일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때 :터 놓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것이며, 또 어떤 반에서는 보고를 받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또 그 주간동안 학생 개인과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학생들이 무안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추구 하면서도 학생들이 영적으로 자라 나도록 도와주고 가르키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함으로 끄치지 않고 그들의 실생활에 배운 기독교적 신앙을 실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같이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것이 행동 반응을 얻기 위한 공부를 성공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계획과 결심이 공과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중추가 되므로 교사들은 교재를 준비할때 이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안 준비에의 안내

이 아래에 적은 질문들은 부장과 교사들이 교재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교수법을 사용하려고 할때 참고가 되기 위하여 쓰여 졌다.

1) 전장에서 배운것을 응용하도록 하라.
   (1) 학기 목적은 무엇이며 단위 목적은 무엇인가?
   (2) 교과 목적은 무엇인가?
   (3) 그 공과는 지식, 영감 혹은 행동 반응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4) 그 목적은 간단, 명확, 특수 한가?
2) 목적있는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교사는 공과를 어떻게 소개 할 것인가?
   (1) 서론이 학생들의 흥미와 일치 한가?
   (2) 학생들의 발언이 요구되는가?

(3) 학생들의 관심을 서론에서 성경으로 옮기는 변화가 있는가?

(4) 교사는 성경을 읽을때 학생들에게 무엇을 찾아 보라고 하더는가?

(5) 이와같은 토론이 공과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것인가?

5) 공과를 발전시키는데 교사는 어떤 주요한 점을 사용할것인가.

(1) 이와같은 점들은 (재료상) 논리적이며 (학생들의 필요와 공과의 목적에 따라) 심리적으로 정리가 되었는가.

(2) 공과의 발전이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진리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 하도록 하는가?

(3) 공과의 발전이 배운 기독교 진리에 좀더 깊은 결의를 갖도록 하는가?

(4) 공과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6) 어떻게 하여야 배운 영적 진리가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할수 있는가?

(1) 어떻게 하여야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진리를 응용할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찾아 보도록 할수 있을까.

(2) 학생들이 배운 진리를 응용할때 당할 어떤 문제들은 무엇인가?

(3)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배운 기독교 진리의 뜻을 그들 개인의 생활에서 심각하게 다루도록 할까?

7) 어떻게 교사가 교재의 발전을 보장 할수 있을까 :

(1)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할것을 결정 짓도록 인도 할수 있을까 :

(2)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실천을 결정 짓도록 인도 할수 있을까 ?

(3) 학생들은 그들이 정한 실천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해야 할까 :

(4) 교사는학생들이 결정한실천사항을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해야할까 ?

제 4 절 지 식 증 가 를 위 한 교 육

처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을때 그 성격은 주로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다. 주일학교는 교회 밖에서 시작되었고 그 목적은 단순히 특전이적은 아이들을 거리에서 몰아다가 읽고 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사용된책은 성경이었고 그후에 주일학교를 교회안에 두게 되었을때 그 지도자들은 여기서 교파의 특징과 성경을가르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성경공부를 강조 했기 때문에 한때는 성경학교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된 적도 있다. 여러 복음적인 교파에서는 수년동안 성경이 중심되는 교재가 되어 왔고,주일학교 운동의 유명한 지도자 한사람은 말하기를 "주일학교의 공공연한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성경과 성경공부에대한 강조를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주일학교에 다닌 학생들에게 성경의 참 지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르켰는지 질문해 보는것도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성경지식 조사의 결과

최근에 켄터키 주에 있는 17침례 교회에서 성경 지식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문제는 신구약 성경에 관한 가장 실제적인 것이었다. 이 시험을 도시와 시골교회에 다 실천 했는데 도시교회는 수입별로 상, 중, 하로 구별하였고 695답안지를 몰았다. 평균 점수는 30에서 16, 57점 이었는데 다시말하면 평균점수가 겨우 33% 정도 였다. 64%는 다음 질문에 바른 답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나라에서 제일큰자는

(1) 모든 사람의 종

(2) 가난한 사람

(3) 마음이가난한사람

(중의 하나이다)

또는 "오순절 후에 (a) 베드로 (b) 바울 (c) 오한 (중의 하나)이 설교한후에 3,000명이 회개 하였다.

일반적인 견해는 장년들이 중등부나 고등부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였다.

장년부의 평균 점수는 20.66
청년부의 " 16.39
고등부의 " 12.64
중등부의 " 5.31

도시 교회에서 수입이 제일많은 구릅의 평균이 32.06, 중급이 15.39, 하급이 1.18이었다. 도시교회 전체의 평균이 시골 교회 전체의 평균보다 더 높았다. 즉 도시 교회는 17.73이었고 시골 교회는 15.89였다. 여기에 보여 진대로 도시 교회의 평균점수는 수입이 낮은 구릅이 만든 나쁜 점수 때문에 훨씬 더 낮아 졌다.

여기에 주어진 조사는 결정적인것은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정 지울수는 없으나 성경이 주일학교의 중심되는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의 빈약이 상당하다는것을 여기에 보여 준다. 주일학교에 5년, 10년, 15년 혹은 20년이 넘도록 다닌 사람이라면 매주일마다 배우는 성경을 어느정도 통달할수 있으니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예수가 나신곳이나, 바구니에담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심한 지식의 결핍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성경 지식을 얻는것이 주일학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 기독교의 도를

따라 살도록 하는것인데 스마트(Games D. Smart)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가 성경을 알뿐만 아니라 성경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다. 어쨌든, 성경 지식을 위한 교육은 가치있는 목적이 될수 있다. 비록 성경 지식이 개인의 영적 발전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와같은지식은 개인게게 좀더 지성적인 신앙을 가지는 기반이 되어 진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 지식을 넣어 주려고 하는것은 가치있는 목적이 될수 있다.

지식목적을 가진 교육

수년동안 주일학교에 다닌 사람도 성경 지식이 극히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필연코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것이며, 대부분의 책임은교사들과 그들의 교수법에 달렸을 것이다. 교사들은 종종 짧은 성경구절을 택하여 공부시간동안 역대 형식으로 보아 버리므로 학생들은 그 성경의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성경을 역대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매주일 이런 형식으로만 가르치는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다. 따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의 조직적인 이해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요구 되기도 한다.

2장에서 이야기 한대로, 교사들은 종종 같은 공부시간에 지식, 영감, 그리고 행동 반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가지 중에 한가지 결과로 제대로 얻지 못하고말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의 어떤 부분이나 혹은 신앙의 어떤면을 통달하도록 하려면 순전히 지식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정의와 설명

지식 목적을 가진 공부란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의 의미있는 부분을 심각하고 조직적인 공부를 통해 배운 내용을 통달하고 이해 할수 있도록 가르치는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각 단어가 중요한데 즉, 첫째로 이 공부는 목적이 있는 심각한 공부가 되어야 하며 주어진 재료를 얕고 피상적인 방법으로 읽고 지나가는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사와 학생이 꼭같이 학자적인 견지에서 공부해야 한다. 둘째로, 조직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어떤 교리를 배우든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배우든지간에 그 내용은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이해를 얻기위한 공부라면, 거기에는 조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고 숙달을 위한 공부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공부는성경이나 신앙의 의미있는 면을 다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과에 쓰여진 성경구절 이외의 성경을 읽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은 학생들의

지식은 그 내용과 양이 같이 의미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넷째로, 이러한 공부는 주어진 재료를 이해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뜻을 이야기 해줌으로서 끝이는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 쉽게 이루워 지는 문제가 아니다. 다섯째로, 이러한 공부는 배운지식을 통달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그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개론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달하도록 지도 해야 한다. 충분히 숙달시킴으로서 3달 혹은 6달후에 그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해도 답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가르친다면 매 주일마다 예배 형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성경 지식을 넣어 주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것이다.

교사가 행동반응을 목적으로 가르칠때도 어떤 지식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반응은 언제나 지식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지식은 교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것 뿐이고 이것은 성경의 일부분을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곳 저곳을 찾아 읽음으로서 배운 신자의 태도를 이해하고 받어 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의 이곳 저곳을 껑충 껑충 뛰여 넘겨 읽으면 성경의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이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경의 통일된 이해를 통한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지식의 두가지 유형

교사가 가르치려고하는 지식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실들, 즉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때 들렸든곳, 이 여행때 일어났든 사건들, 바울 서신들이 쓰여진 날짜 혹은 초기 기독교 역사의 사건등을 숙달시키려는것이다. 둘째는, 의미를 아는 지식이다. 두가지 유형의 지식이 다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둘째번 지식이 더욱 중요하다. 지식독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 두가지식을 다 사용해야 되겠는데 즉 익숙히 알어야할 사건도 있고 살 이해 해야 할 의미를 가진 사건도 있을것이다. 만일 아모스서를 공부한다면 그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모스가 전도하든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영적인사태를 알고 싶을것이다. 주어진 사건들은그릇을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아는 기초가 될것이다.

학기, 단위 혹은 공과 -- 때로는 한학기 전체를 지식목적을 가지고 보내고 싶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고등부나, 장년부에서 예수의 생애를 한학기동안 공부할수 있을것이며, 그 학기 목적을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의 목음 사업의 중요한 사건과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자" 라고 정할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둘론 한학기에 모든것을 다 포함 할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그훈중에 어느것을 가르켜야 할지 유의 해야 하며, 학생들이 적에 접지 못한 사건과 교훈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할것이다. 어떤때는 교사가 공과의 단위에 지식을얻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한학기 전부를 지식 공급에 쓰지 않고 학생들이 가장 지식이 결핍하다고 생각되는 면을 위하여 일관되는 공과를 가르칠수도 있을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한학기의 일부는 지식 목적을 위하여, 그 남어지는 영감 혹은 행동 반응을 위하여 사용할수 있게 될 것이다.

지식을 가르치는데 따르는 요소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공과를 가르쳐 본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몇가지 제안을 순서적으로 적어 보기로 한다.

교사의 지식 — 교사 자신이 가르칠 재료에 대한 이해와 숙달이 있어야 한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교사 자신의 지식결핍이 학생들에게 진지하고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지 못한 중요한 이유를 중의 하나이다. 교사들이 이와같은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배경적 준비가 없다는것이 좋은 구실이 될수는 없다.

앞장에서 이야기 한대로 교사가 지식 목적을 가지고 가르침으로서 자신이 전에 가지지 못했든 성경의 지식을 얻을수 있게도될것이다.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것은 고된일이나 가치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쉬운 일을 약속하시는것이 아니라 좋은 길을 약속하신다. 주간의 준비 공부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고, 어떤 부에서는 한학기 전부를 지식을 위한 독적에 따라 가르치기로 결정한다면 교사들이 준비공부시간에 좋일 때 매주일 가르칠 성경을 진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기회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는 그들의 일생동안 가르치는 일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배경— 학생들이 배울 성경 지식은 그들의 연령과 배경과 일치 될수 있는 정도의것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고육원리는 교사가 학생들의 현재의 지식위에 세워나가는것인데 이것은 즉 교사가 학생들의 현재 지식 수준이 어떤지 알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을 잘 알어야 된다는 뜻이다. 주어진 공과가 너무 쉬워서 학생들에게 아무 자극이나 흥미를 못주어도 안되고 그와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이해할수 없어도 안된다. 교사가 고안을 작성 할때 수준이 좀 낮은학생들을 위하여 일부를 준비하고 또 일부는 수준이 좀 높은 학생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동기와 목적 — 교사는 학생들이 배울 그것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고육이 성립될수 없고 이것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훈육상 난점을 갖게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소년소녀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게 되면 배우고 싶지 않게 되고 배울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중등부나 장년부를 막론하고 배우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흥미, 욕망, 그리고 목적이다. 여기서 이러한 흥미를 돋구어 주고 욕망을 일으키고 목적을 전개하는것이 교사의 과업이다. 더 뚜렷이 이해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흥미, 욕망, 그리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비록 교사가 그 공부에 흥미를 갖고 목적을 인정하게 된다해도 그 공부가 의미있고 효과있게 되자면 그 공부는 학생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조 직 — 교안을 작성할때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할수 있도록 잘 조직해야 한다.

복 습 — 지식을 습득 시키기 위하여 교사는 종종 복습을 시켜야 하는데 학생들이 배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기에는 이것이 필요한 방법이다. 반복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재를 숙달할수 있게 된다.

방법의 다양 —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공부를 익숙히 알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싶어질것이다. 때로는 질의 문답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때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을 주기위하여 슬라이드, 영화, 지도, 칠판 혹은 도표와 같은 시각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다. 결국 교사가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고안 — 새로운 안들을 너무 자주 제시해도 안된다. 이렇게하면 먼저 배운것들을 지워버리는 경향이 생기므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는것 보다는 적은 양을 가르치므로 그것을 익숙히 이해할수 있도록하는것이 더욱좋은 것이다.

고안 작성의 단계

앞장에서 행동 반응을 위한고안 작성을 논여 주었으나 교사가 지식 목적을 가지고 고안을 작성 할때는 그의 고수 요령이 달라 지므로 그의 고안도 달라야 할 것이다. 다음에 몇가지 안을 제시해 보기로한다.
흥 미 — 고사는 공부를 시작할때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킬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학생가운데 누가 "왜 나는 이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고사는 거기에 답을 할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교육이 효과적이 되자면 학생이 배우는 목적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
전 망 — 공부 시작할때 학생들에게 적당한 전망을 가질수 있도록 배울 분야의 총괄적 전망을 주는것이 좋다. 학생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어야 하며, 지식 목적을 가지고 여러 주일에 걸쳐 성경의 같은 부분을 공부할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 주일에 걸쳐 초기 히브리 역사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 공부의 요점들을 이야기 해 줌으로서 역사의 대강한 윤곽을 머리에 두고 공부해 나가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 윤곽에 맞추어 이해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를 가르쳐 총괄적 전망 혹은 복습이라할수 있는데 매 주일마다 계속되는 공부를 할때 지난 주일에 배운것을 복습함으로서 전체적인 윤곽을 더 뚜렷이 이해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조 직 — 이것을 공과의 발전이라고 할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교사가 가르치려는 재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조직은명확하며,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기억해야 할 점들은 뚜렷하게 강조 되어야 하며, 이러한지식은 교사의 노트에 적혀 있는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에 조직적으로 기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요약과 복습 — 공부를 끝내려고 할때 배운점을 요약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 배운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학생들의 생각에 흥미하든 문제들로 정확하게 정리되고 복습되므로 학생들이 영구히 간직할수 있는 지식이 된다.

숙 제 — 숙제는 교사가 정한 교안 목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행동반응을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학생들이 정한 어떤 과제를 실천하려는 행동이 숙제가 될것이고, 만일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공부를 했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주일에 배울 어떤 지식을 찾아 노도록 숙제를 낼수도 있다.

그 목적이나,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숙제는 학생들의 흥미에 준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숙제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숙제를 주고 그 다음 주일에 가서 꼭 조사를 해야 한다. 그사가 숙제를 준후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곳 숙제가 자기들에게 아무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버릴것이다.

계 획 — 몇주일 혹은 한학기 동안 지식 목적을 세운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해도 좋을 것이다. 계획은 주로 교실 밖에서 하는것이지만 때로는 공부 시간에도 할 수 있다. 계획은 학생들이 배운 재료를 더—익숙히 알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초기 히브리 역사나 혹은 8세기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학생들은 그 날짜, 정치적 사회적 조건, 히브리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세지를 가지고 도표를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학생들이 배운 단어 장소 혹은 사람들을 노트에 적어 볼수도 있을 것이다.

고안 작성

앞장에서는 행동 반응을 위한고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지식을위한고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 고안을 프린트 해서 공과 준비 시간에 나누어 주어 교사 자신들이 정한 고안에 따라

계획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지식을 위한 고안

1. 학기 목적
2. 단위 목적
3. 공과 목적
4. 흥미로 시작(욕망과 목적을 푸기 위하여)
5. 전 망 (학생들에게 적당한 전망을 줄 필요가 있다면)
6. 조 직(재료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조직)
7. 요약과 복습 (이해와숙달을 위하여)
8. 숙제와 계획

복습의 위치

지식을 얻기위한공부의 목적은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 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복습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복습의 의의 — 복습이란 배운 재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습득할수 있기 위하여 다시 읽어보는것을 말하는데 이 복습이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것이 아닐때는 훈육상 난점을 가지게 될것이다. 복습할때 주로 머리 좋은 학생들만 질문에 답을 하고 실제로 복습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은 제외되고 마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모는 학생들이 다 복습에 흥미를 갖도록 할수 있을까?

이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인데 고사는 복습을 주 조심스럽게 준비 해야 한다.

1) 복습은 학생들이 배운것을 조직할수 있게 한다. 앞에 이야기 한대로 배운것을 영구히 간직하려면 언제나 그들이 머리속에 기억할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2) 복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다른 지식과의 관계성을 알게 본다. 예를 들면 스승이 거눕나는 경형에 대해 공부 한다면 그들은 거둡난 교인과 그들의 성직과의 관계성을 알게 될 것이다. 혹은 이러한 지식과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도들의 책임과의 관계성을 알게 될수토 있다.

3) 복습을 통하여 배운것을 반복 함으로서 학생들의 기억을 살릴 수도 있다. 지혜있는 스승은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서 교육을 성립시킬수 없다는것을 알기 때문에 반복을 통하여 배운것을 굳게 마음에 색이도록 한다.

4) 복습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준비나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새로운 공부는 전에 배운 지식을 근거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5) 복습을 통하여 잘못 알었든 점을 수정할수 있다.

6) 복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배웠는지 검토하여 볼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고사에게 좋은 도움이 될수 있다.

언제복습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
결국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해야 할것이다.

1) 공부 시작할때 지난 주일에 배운것을 복습할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해서는 않된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나요?" 라는 질문 부터 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나갈수가 없을 것이다. 먼저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킬 어떤 목적을 제시해 준후에 복습으로 들어간다면 퍽 의미있는 공부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지난 주일에 배운것을 거의 잊어버리는게 보통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어 배운것을 복습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좀 혼잡한 문제를 다루고 난후에는 "방금 배운것을 오약해보자" 혹은 방금 배운것을 복습해 보자" 라고 할때 학생들은 배운것을 조직하고 구체화 할수 있게 된다.

3) 지식 목적으로 공부한후에 교사가 오약 혹은 복습을 함으로 학생들에게 배운것을 자기들의 영구한 지식으로 삼을수 있게 한다.

4) 몇주일에 걸쳐 한단위별로공부한후에 좀더 함축성있는 복습을 시킬수 있다.

5) 또는 1학기동안 많은 공부를 시킨후에 좀더 함축성있는 복습을 시키는것이 좋은데 이것은 한시간 전부가 걸릴수도 있다.

만일 학생들이 지난 3개월동안 배운것을 기억할수 있다면 그들은 공부를 잘한셈이다.

이와같은 복습을 통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배운 여러 가지 상세한 점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상세한 내용들은 중요한공과를 기억하기 위하여 배운것이기 때문에 그 공과를 얻은후에는 너무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훈련의 위치(Drill)

정 의 — Drill 은 복습과같은것이라고 혼동해서는 안된다. Drill 이란 정확하고 빠른 반응을 얻기 위한 반복을 말한다. 학생들이 구구법을 암송하기 위하여 Drill 이 필요하듯이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도 훈련(Drill)이 필요할때가 있다.

언제사용하나 — 훈련은 즉 3x7 =21 이라고 하는것과 같은 자동적인 반응이 필요할때만 사용 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방법은 성경의 이름, 예수의 나신장소, 어떤 주요한 사건이나 장소 혹은 성경 용어책을 사용하는 방법, 성경 구절 찾는 방법, 혹은 성경구절 암송 같은것을 위하여 사용할수 있다.

교사들은 간혹 훈련이 필요치 않은곳에 훈련을 사용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많다. 가치없는곳에 훈련을 사용하게 되면 그 반복되는 단조로움 때문에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지루해 지므로 교사는 꼭 훈련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건과 개념들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용방법 — 훈련을 재미있게하는것은 교사의 과업이다. 즉 단조로움을 면키위한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S/W T P D I 이란 성경구절을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배우는데는 Bible Baseball 여러번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교안준비에의 안내

다음에 실린 질문들은 부장과 교사들이 교안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교사들로 하여금 한학기동안 배울 공과를 살펴보고 각 단위와 공과를 위하여 지식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2. 교사들로 하여금 학기, 단위, 그리고 공과의 지식목적을 기록해 보도록 하라. 무슨 성경구절을 배우려고 하나? 이 구절은 공과를 위해 의미 있는 구절인가?

3. 교사들이 가르칠 분야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가? 혹은연구를 더해야 하나?

4. 교사들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나?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얻고 싶도록 지도 할수 있을까?

5. 배울 공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주려고 하는가?

6. 배울 공과를 어떻게 조직 하려고하는가?

(1) 무슨 중요한 문제를 배우도록 하려는가? 어떻게 하여야 학생들이 이해를 가지고 공부할수 있도록 할까?

(2) 무슨 교수법을 사용하려고 하나?

(3) 학생들이 배운것을 어떻게 하여야 조직적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게 할수 있을까?

7. 어떻게 하여야 요약과 복습을 의미있게 지도할수 있을까?

8. 일주일 동안 어떠한 숙제를 주려는가?

(1) 그 숙제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2) 그 숙제를 통하여 배운 공부를 복습할수 있는가?

(3) 그 숙제를 통하여 새로운것을 배울수 있는가?

9. 준비된 공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성경 지식을 얻을수 있는가?

제 2 장 여 러 가 지 방 법 의 소 개

제 5 절 방 법 의 소 개

"들어오세요, 린든 부인! 들려 주셔서 참 반가워요. 부인께서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연령이 같은 애들을 가르치시니 도움되는 말씀이라도 해 주시요" 라고 인사를 나누고 두 여인은 응접실에 앉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힐 부인? 내가 어떻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나는 다음 주일에 가르칠 공과를 어떤교수법을 사용하여 가르쳐야될지 결정을 짓지 못해서 궁리하고 있는중이야요!"

"왜요, 오늘은 아직 월요일인데요. 나는 아직 주일학교 공과책을 쳐다 보지도 않었고 또 무슨 교수법을 사용하는지 걱정도 안되는데요. 나는 그저 교사들을 위한 공과를 읽고 거기에 쓰여진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줄 뿐이여요".

위의 대화는 지어낸 이야기 이지만, 이와같은 경우가 실제로있지 않을까?

방법에 대하여

"나는 위에 있는 이야기에 나온 한 여인만큼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사실 나는 내가 사용할 방법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어. 어쨌든 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둘 필요를 느끼지 않어"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것이다. 가르치려고 할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사가 생각해야할 세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첫째로는, 성경과 공과 준비를 한후에 고사는 어떤 교육을 시킬지, 또는 이와같은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결정 지어야 한다. 한주간동안 고사는 여러 시간을 걸쳐 공과에 관련된 재료들을 공부 함으로서 자신에게 의미있고 또 공과의 목적에 적절한 생각들을 발견해 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사들은 이만큼 공과의 재료를 공부해서 연구한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사 자신이 공과를 연구할때 누가 이야기 해 준것이 아니고 자신이 조사와명상과 분석을 통하여, 즉 경험을 통하여 준비한 것이다. 학생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그 공과에서 제시하는 지식과 통찰력을 얻고 고사의 목적에 합치되는 태도를 찾어 내도록 하기 위하여 고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교사가 해결해야될 셋째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즉 자기의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배움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교사가 공과를 가르칠때 방법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로 학생들이 배운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교사는 가르칠 공과의 재료를 알뿐 아니라 그 재료를 사용할 가장 좋은방법을 알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만큼 예비 지식이 없다는것을 기억하고 교사 자신의 연구와 학생들과의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없이하는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한대로, 그는 자기가 안다는 사실은 잊어 버리고 학생들이 모른다는사실만 기억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칠 공과의 재료만 알고 그칠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 느끼고 믿고 행동할수 있도록 도와 줄줄 알어야 한다.

방법의 일반적 문제

어느 교사가 13살난 남학생들에게 "광야의 방황" 이라는 내용의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10분동안 그는 유대인들의 의식에 대한 자세한 규칙과 조건들에 대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안정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한 아이가 옆의 학생의 의자를 잡어 끌어서 온 방안이 수라장이 되었다.

교사는 질풍같이 교실밖으로 나와 부장실로 뛰여 들어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젠 그만 가르치겠소, 그 적은 작난 꾸러기들을 가르치지 못하겠소" 하였다. 부장은 얼마동안 의논을 한후에 뭇기를" 그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소?" 라고 하니까 "그들의 흥미를 끌어요? 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라고 애썼는데 누가 성경을 가르치면 그들은 거기에 흥미를 가져야 할게 아니요." 라고 그 교사는 반문하였다.

위의 설명이 제시 하는대로 방법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배우고싶은 욕망을 일으켜주자는 것이다.

교사로서 "그들이 흥미를 가져야지요" 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는 초점을 완전히 잃은사람이다. 그들이 흥미를 느껴야 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는 초점이외의 말이고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다면 그 흥미를 일으키는것은교사의 과업이다.

종기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것은 목적이다. 학생들은 다음과같은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있을것이다. 왜나는 이것을 배워야 나나? 나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급에서 인도하여내는것을 배워야 하나? 왜 나는 아쓰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여행에 대해 배워야 되나?" 하고 방법의 문제들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목적을 알도록 인도 하는것이다. 학생들이 목적없이는 배우는점이 극히 적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의미이와 학생들이 배우는데 뜻을 알수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속으로 "이건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할것이다. 배우는데 대한 아무의미를 찾지 못할때 그들은 다루기 어려운 학생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교재를 준비할때 다음에 있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하는것이 방법의 문제이다.

1.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줄수 있을까?
2.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이 공부에 대한 목적을 갖도록 할수 있을까?
3. 어떻게 하여야 학생들이 이 공부의 의미를 찾도록 할수 있을까?

방법선정

일반적으로 다섯가지 교수법을 들수 있는데 그것은 질의문답식, 토론식, 강의식, 이야기식, 그리고 계획이다.

시각교육도 교수법중의 하나로 들때도 있다. 그러나 시각교육은 질문과토론과 같은 다른 방법을 도와주는 역활만 하는것이 보통이다. 흥내내기는 토론방법에 낄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수법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교수법을 볼때 교사들은 종종 어느 교수법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될만한 규칙도 없고 또 규칙이 필요 하지도않다. 같은 공과를 두고 어떤 교사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교사는 다른방법을사용한다해도 학생들의 배우는 입장에서 볼때 그 성공의 결과는 같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주일 공과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 짛을수 있는 몇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가르칠 학생들의 연령을 참고해야 한다.
같은공과를 가르친다 해도 토론식은 고등부나 청년부에 맞지만 그보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합당치 못한다.

또 한가지 생각 해야 할 점은 교사가 정한 공과 목적이다. 예를 들면 공과제목이 "오늘날의 안식일", 이라면 거기에 대한 교사의 목적을"학생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라고 한다면 그는 성경 참고서와 즉석들을 찾어 재료를 돌으고 그가 연구한것을 기준하여 훌륭한 강의를 할수 있을것이다. 그 반면에 다른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늘날 안식일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자" 라고 목적을 세운다면 여기에 따른 성경의 교훈을 표준해서 솔직한 토론을 전개할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공과에 대해 세운 교사의 목적에 준해서 그 목적을 성취할수 있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에는 가르칠수 있는 시간적 한계성을 생각해야 한다. 강의식 방법의 장점중의 하나는 교사가 여러시간 애써 연구한 재료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칠수 있다는점이다.

토론 방법은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지만 교사가 준비한 재료를 다 토론할수 없으나 토론한 문제들은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

계획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동작함으로서 효과적인 공부가 된다고생각해서 공부 시간 전부를 계획에 쓰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려고 하는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을 참고해야 한다. 학생들의 상식이나, 지식이 적은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면 토론식은 현명한 방법이 되지 못할것이다. 대부분의 장년들은 아모스선지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죄악상을 토론할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겠지만 그들의 동리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죄악상은 퍽 지적으로 토론할수 있을 것이다.

장년반교사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핍을 숨기기 위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같이 학생들은그들이 배워야 할만큼 배우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교사는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방법의 여러가지

어느것이 제일좋은 방법이고, 어느것이 제일 나쁜방법이냐 :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게인주 박사는 말하기를" 가장나쁜

방법이란 언제나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하였다. 어떤방법이든 지간에—.

토론, 질의문답 혹은 강의식 — 매일요일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같은것을 사용할때 그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 되고 만다. 나는 이야기 듣기를 좋와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매주일마다 아무것도 안하고 이야기만 해주는것을 좋와할수 없다. 그러면어느것이 제일 좋은방법일까? 제일좋은 방법은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각각 그 고유의 목적과 장소가 있다. 아마 두세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어떤때는 한가지 방법만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교사는 한시간 동안에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 하는데 좋다. 즉 질의문답을 하다가 토론도 하고그다음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식도 쓰고 또는 잠깐동안 이야기를 해줄수도 있을 것이다.

한두가지 방법만 써오든 교사들은 그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칠려고 하면 겁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성을 가지고 노력 할때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 한두번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실패 때문에 겁을내서는 안된다.

한소년이 자전거를 배우는데 넘어질까봐 무서워 한다면 그는 자전거 타기를 배우지 못하는 것과마찬가지로 교사도 공과

에 나타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말어야 한다.

방법은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는 교사가 질의문답이나 강의 토론을 인도 하거나 이야기을 해주는데 능숙해 진다는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학생들이 배우게 되느냐 하는점이다. 방법이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과 이상과 진리를 전해주는데 사용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배움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을얻고 그 교훈을받아 들이고 확신을갖고 거기에 따라 실천하도록 방법은 교육의 원리와 조화되어 사용 되어야 한다.

제 6 절 질 의 문 답 식

교사는 학생들이 배울수 있기 위하여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질문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는것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 교육원리와 이 원리가 적합한 질문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 보겠다.

1) 정신 활동은 배움의 근본오소이며, 좋은질문은 학생들의 정신활동을 자극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게 된다.

2) 학생들이 새로운 견식을 얻도록 하는 줄거리의 전개는 배움의 살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발견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을 할것이다.

3)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배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질문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주어 그 답이나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유능한 고사는 학생들과 질의문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거 잘알것이다.

질문의 형식

많은 고사들은 한가지 형식의 질문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것도 교육의 단조성을자아내게 한다.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형식을 참고하여 다음 주일 공과를 위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고안해 보도록 하자

실실적 질문—고사들은 대개로 실제적인 질문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질문은 주로 학생들이 지닌 사실이나 지식을 알아보아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아주 가치 있고 합리적인 질문이며 이러한 실제적인 질문을 다음과같이 분류할수 있다.

1) 정의— 이와같은 질문은 어떤 것을 정의 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지식을 알어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들면 "복음 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

2) 원천—이 질문은 어떠한 것을 알어낼수있는 장소를 다루는 것이다. 즉 "예수의 나심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느냐 ?"

3) 누가, 두엇을, 언제, 어디서 — 이것은 가장 보편적 미면서도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질문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느냐? 사두개 그인들은 부활에 대해 무엇을 믿었느냐? 유대인의 방랑은 언제시작되었느냐? 예수가 나사렛을 떠난후에 어디서 유숙하셨느냐?

4) 분류 학생들의 지식이나 견문을 체계적으로 분류시키는데 사용 된다.
예를 들면: 남쪽 이스라엘 왕들중에 가장좋았든 왕과 가장 나뻤든 왕들을 적어라.

5) 훈련이나 복습 —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그들의 머리에 견고하게 간직하도록 한다. 예를들면: 누가 성경의 책이름을 외우겠니?
사고적 질문 — 이것은 사고를 유발시키고 의견을 찾아 이해를얻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분해 될수 있다.
1) 사고의 유발 — 어떤 질문은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 시켜서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서로 교환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은교육의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넓고 더 깊은 견식을 얻게 한다. 이러한 질문과 의견의 교환을 통해 학생들은""나는전에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 혹은 "나는 그 문제를전혀 그 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 라고 할것이다.

예를들면: 일요일에 야구 시합구경가는것은 나쁜가 왜 나쁜가? 혹은 왜 나쁘지 않은가?"

2) 더 깊은 이해 — 이런 질문형식을 통하여 고사는 어떤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의의 — 학생들이 배운 성경의 뜻을 이해하는지 검토해 보는 질문이다. 고사들은 종종 학생들이 실제로는 어떤 성경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극히 중요 하다.

예를들면: 마음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 라는 산상보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활과의 관계 — 이러한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성경구절과 자기의 현재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와같은 질문을 종종 사용하여 학생들이 배운 성경지식을 그들의 생활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예로는: 성경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일러주시는데 학생들의 생활 가운데 이 구절을 응용할만한 어떤 경험이 있읍니까?

3) 규명하기 위하여 — 때로는 학생들이 가진 지식이나 또는 표현하는 생각이 희미할때가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규명하도록 질문을 해야 한다.

학생이 그의 의견을 발표한후에 교사가 문제를 생각해서 학생들이 그문제에 대하여 어떤반응을 보이는지 물어보는게 좋다.

예를들면: 학생이"나는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된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할때 교사는 " 그말은 정부가 군대를 위하여 군목을 보내는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니?"라고 이야기 할수 있을 것이다.

생각의 격려

교사들은 사실적인 질문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시키는 질문에 대해 좀더 관심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고를 격려 시킬수 있는 몇가지 특별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요 약 — 학생에게 그때까지 가진 토론을 요약해 보라고 질문할수 있다. 종종 학생들이 토론을 한후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요약을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이 희미한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만다.

예를들면: 메리,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해온것을 요약해 보겠니?"

비 교 — 학생에게 비교나 대조를 해 보라고 질문할수 있다. 예: 아모스시대의 사회적인 조건과 오늘의 사회적

조건을 비교하라.

일반적인 전제 — 교사가 일반적인 전제를 주고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한 예를 들라고 질문할수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고훈에따라 우리가 할수 있는 예를 들어 볼수 있을까 ?

결과를 예언 — 교사가 몇몇 사태를 설명해준후에 학생들에게 가능한 결과를 이야기 하도록 할수 있다.

예: 죠니가 방금 떨어진 나무 잎들을 정원한곳에 잔뜩몰고 있는데 재크가 뛰여와서 그 모아놓은 나무잎들을 사방으로 차 버리니까 죠니가 그를 따라가서 때려주었지. 이렇게 되면 어떤일이 생길까 ? 죠니가 어떤다른 행동을 취할수 있을까 ? 그러면 어떤일이 생겨날까 ? 죠니가 화해를 할려고 한다면 어떻게했어야 할까 ?

문제 해결 — 학생 개인이나 전체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예: 쌤이 너무 용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은 어떤경우가 생기는지 용돈을 더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간동안 쌤은 가지고 있든 돈중에서 20전과 다음주일 헌금할 10전을 남겨두고는 다써 버렸다. 토요일 저녁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로 같이 구경가자고했는데 구경값은 30전이라고한다. 쌤은 이때에 어떻게할까 ?

<u>질문의개선</u>

교사가 그의 질문을 개선하는데 도움될수 있는 간단 하고

실제적인 제의를 해 보도록 하라.

재료의 숙달 — 많은교사들은 자기들이 답할수 없는 질문들을 학생들로 부터 받을것을 두려워하여 질문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야 된다는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와 반면에 교재를 충분히 숙달하는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교재 준비에만 시간과정력을 소비 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그 교재가 주는 견식과 뜻과 숙달을 얻도록 인도할수 있는 시간을 별로 가지지 못하게 된다.

조밀한계획 — 교재 준비시간에 교사는 그가 하려는 질문을 조밀히 계획해야 한다. 만일 자기가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해 낸 질문하나 하나를 전부 적어 주도록 해야 한다.

정확성 — 교사의 질문은 그가 묻고싶은 것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것이 되어야 하며, 질문을 기록해 보는것은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교사가 질문을 한후에 그것을 다른 말로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좋은 질문이 될수 없다.

간략성 — 질문은 학생들이 기억할만큼 간단하고 간결해야 한다.

긍정, 부정 — 학생들이 긍정 혹은 부정으로 답할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너무 많이 사용 해서는 안되며, 이와같은 질문은

학생들의 토론을 효과 있게 하기가 어렵다.

사고를 위한 질문 — 사실적인 질문을 피하고문제를 부정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라. 사실적인 질문이 나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이 주로 사실적인 질문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생각할 시간 — 교사가 질문할때는 학생들이 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학생전부를 포함 — 이 문제는 두가지 뜻을 가지는데 첫째로는 질문은 학생 전부의 생각과 주의를 환기 시킬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오늘날 기독교인이되어 생활하는것이 우리 할아버지 들이 어린아이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죠,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해야지" 죠, 네생각은 어떻니? 라고 처음 부터 개인을 지적해서는 안된다.

둘째로는: 부끄럼을 잘 타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시켜야 한다.

질문을 계획 — 질문을 할때 교사는

(1) 학생들의 년령과

(2) 그들의지식과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질문이 너무 쉬워서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케한다든가 혹은 답이 너무 뚜렷해서 학생들이 답을 할 필요가 없는질문이 되어서는 않된다.

무 응 답 — "내가 질문해도 학생들이 아무 말도 안해" 하는것이 많은 고사들의 일반적인 불평이다. 이런경우에는 고사가 자기의 질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답을 몰라서 답을 하지 않는자. 혹은 답할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이 하기위하여 고사는 사고적 질문을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연령과 경험에 따른 흥미있는 질문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는것이 좋다.

학생의 질문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것이 학생이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것 보다 더 중요하다.

학생의 질문을 권유 —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재제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험으로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었다.

둘째로는, 고사가 가르치는데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교사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질문을 격려하기위하여 "무슨 질문이 있니?" 라고 한다면 간혹 질문을 합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반응이 없다.

학생들의 질문을 격려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계되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과를 가르칠때 질문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교사의 태도 — 학생들은 교사가 그들의 질문을 거절하는지 환영하는지에 따라 행동할것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을 환영함으로 끄칠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태도와 가르치는 방법이 학생들의 질문을 환영한다는 표를 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질문을 존경으로 대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 질문의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한다.

문제의 질문 — 문제의 범위 밖의 질문을 받을때 교사는 답을해야 할까 혹은 하지 말어야 할까? 이와같은 경우에 교사를 인도할만한 규칙은 없으나, 문제밖의 질문을 받어서 거기에 대해 답하려고 할때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할지 생각해 볼수 있는 세가지 문제점을 여기에 보이기로 하겠다.

1) 그 질문이 질문하는 학생에게 중요한 것인가? 간혹 그 질문이 공과와는 관계가 없지만 오랫동안그가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이 될수도 있다. 이와같은 질문을 할때 그는 답을 즉시 받기를 원하고 교사는 또한 즉시 답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 이와반면에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엉뚱하게 생각난 질문을 답을 얻고 싶은 생각도 없이 하는 학생도 있다. 이때 그 질문이 그 학생에게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고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그 질문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의 성질에 따라 교사는 거기에 대해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생각해 낼수 있다. 어떤 질문은 피상적인 답만해야될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질물은 생활과 종교의 핵심을 찌르는 경우도 있다. 또는 어떤것은 개인의 기독교적 이해와 성장에 방해를 주는 것이 될수도 있고 또는 학생의 직접적인 경험에 당면한 문제로서 거기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를 찾고 싶어 하는 질문일수도 있다.

3) 그 질문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중요한것이 될까? 만일 그 질문이그 개인에게 관계된 것이라면 공부가 끝난후에 **개인적으로** 말나 이야기 하는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한학생이 낸 질문이 전학생에게 깊은 관계가 있는것이 될수도 있는데 즉 고등학교 과학시간에 교사가 낸

신학적 질문일수도 있고 또 그 동리에서 일어난 어떤사태에 대하여 학생들이 기독교적적인 반응을 보이려는 질문일수도 있다.

위의 세가지 제의에 비추어 교사의 답이 아니라고 할때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극히 간략한 답을 한후에 급히 공과로 돌아가야 한다. 또는 위의 세가지 제의에 비추어 교사의 답이 긍정일때 그는 그 질문에 답하기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들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때는 학생의 질문이 극히 중요한것이 되어 공과를 아예 그만두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한시간 전부를 사용 해야 될 경우도 있다. 어쨌든 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것 보다는 학생의 질문에 교사가 답을 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안준비에의 안내

다음 주일 공과를 준비할때 부장이 그 공과의 윤곽을 칠판에 써 놓고 교사들은 각기 학생에게 낼 질문을 기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에 참여 할수 있는 질문을 충분히 했는가? 부장은 교사들로 하여금 다음의 제의에 따라 그들의 질문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도록 해야 한다.

1) 몇가지 질문이 Yes 나 No 로 답해질수 있나?

2) 질문이 간략한가?

5) 질문이 명확한가?

4) 어떤 질문이 사실적인가?

3) 어떤 형식의 사실적 질문인가? 정의, 원천, 누구,—
무엇,—언제,—어디? 분류? 훈련 혹은 복습? 고사
는 한가지 형식만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사고적 질문은 어느것인가?

7) 이와같은 질문은 주로 사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혹은 분석하기 위하여 하는것인가?

8) 어떤 형식의 사고적 질문인가?
요약, 비교, 일반적 제의, 결과의 예징, 문제해결?
고사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7 절 토 론 식

토론식은 교육의 가장 인끼있고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은 일기, 정치, 농산물, 최근의 스타일, 모자, 운동 혹은 그이외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매주일 성경공부를 통하여 고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더 신자다운 결심을 갖도록 인도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는것을 표현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수 있을까?

토론식은 각 개인에게 그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좋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규명하고 취할 태도와 결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이 토론식은 다른무엇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잘 이끌수 있다. 좋은 토론을 통하여 의미없고 매마른 공부를 생생하고 뜻 있는 경험으로 이끌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토론이란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리를 찾기 위한 협동적인 탐구 이다. 문제가 있고 그 반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가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기 위하여 활발하고 긴밀한 탐구를 하지 않는한 학생들이 반에서 이야기만 한다고 그 교사가 토론식 강의를 한다고는 말할수 없다. 토론이란 논쟁은 아니다. 종종 교사가 어떤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토론대신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과 논쟁의 다른 점을 알지 못하는한 그들이 토론으로 시작한것이 나중에는 논쟁으로 끄칠위험이 있다.

1) 토론과 논쟁의 다른점은 무엇인가?

토론은 개인의 의견을 표시하고논쟁은 형식상의 위치를 옹호 한다.

2) 토론은 새로운 견해를 추구하고 논쟁은 어떤점을 증명하려고 한다.

3) 토론은 진리를 위한 공통적 탐구이고 논쟁은 어떤 논의를 설복시키려고 한다.

4) 토론은 여러가지 선택의 대상을 제시하지만 논쟁은 단 두가지 만을 제시 한다.

5) 토론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 되어서는안되지만 논쟁은 될수 있다.

6) 토론은 다른 견해를 이해하려는데 관심을 두지만 논쟁은상대방의 견해를 논박하는데 관심을 둔다.

7) 토론은 전학생들이 제한없이 참여할수 있으나 논쟁은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다.

8) 토론은 비공식적이고 논쟁은 형식적이다.

(논쟁이 비공식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부조리한 쟁논이 될수 있다.)

토론은 학생 전체가 진리를 찾기 위한 공동적 협력인데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당면할수 있다. 우리가정을 좀 더 신자다운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와같은 토론의 목적은 어떤점을 증명하거나 혹은 논의를 이기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가진 모든 적절한 사실과견해를 공개해서 모두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어떤 한사람이 진리를 알지는 못하나 각 개인이 진리의 어떤 면을 안다고는 할수 있으므로 개인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 하다. 토론할때 각 개인은 어떤 결론이나 결정을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생각과 견해를 평가 하게 된다.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이와같이 평가하는 과정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귀중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현명한 결심의 근거를 세우고 이와 같은 결심은 행동을 인도하고 생활을 꾸미는 자세로 자라나게 된다.

물론 학생들은 연령에 따라 문제의 성격과 토론에 있어서의 교사의 기능이 달라 질 것이다. 초등부 중등부에서는 문제가 대개 간단하고 토론시간도 짧게 주며 교사가 상당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청년과 장년들에게는 좀더 복잡한 문제를 주고 합당한 토론을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좋은 토론이 될수 있는 요건들

문제 一 유용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 있는데 첫째로 학생들은 어떤 성실한 문제를 갖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놓고 토론을 하자면 거기서 생생한 토론을 기대할수 없다.

그 문제는 양자택일을 지시하는 실제적이고 살아 있는 논점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교사는 도저히 학생들이 토론하도록 할 도리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것은 아마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종교와 생활에 관계되는 논점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는언제나 교사의 흥미와 학생들의 흥미와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즉, 교사는 그의 연구와 경험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 관심이 깊다 해도 학생들은 전혀 흥미가 없게 될수도 있다.

둘째로 중요한것은 토론의 문제를 학생들이 ㅇ그들의 문제로 느끼고 받아 들여야 한다. 때로는 학생들이 아직 그들의 생활에 당면하거나 느껴 보지 못한 문제를 교사가 애써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라는 제목의 토론을 가진다고 할때 학생들은 정말 영적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할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그들의 생활에 관계 시킬수 있는 점은 뭐엇일까? 여기에서 교사는 토론을 잘 지도하여 예수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학생들은 생활의 여러면으로 생각의 기획를 돌릴수 있으나 각 학생은 실제로토론에 참예하기전에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를생각하게 되어야 한다. 토론식을 사용할때는 다룰 문제의 성격에 대해 교사가 지나친 압력을가할수 없다.

교사가 학생들로하여금 신자의 경험을 쌓도록 하는데는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다. 즉, "우리교회의 청년들을 돕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와같은 문제는 토론에 끄치지 않고 행동 까지 미치게 된다.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토론만 하고 끄친다면 그 교사는 충분히 가르쳤다고 할수 없다.
또 "그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예배시간에 어떻게 하면좀더 엄숙하게 될까?" 이와 같은문제는 토론과 행동을 다 요구 한다. 또한 "지적인 문제" 가 있는데" 우리는 육체적 부활을 믿는가?" 또 태도에 대한문제"로는 "소수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무엇인가?"

교사는 학생들을 자세히 알고 그들이 당면하고있는 문제들을 알어야 하며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만 그는 학생개인에게 결과 있는 공부를 시킬수 있다.

교사의 태도 — 좋은 토론의 둘째 요소는 교사의 태도이다. 이것은 토론이 진행될때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간의 일반적인 관계가 가장중요하다는것을 말한다.

토론식을 사용할때 교사는 탐구하는 태도를 지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토론은 진리를 찾으려는 통합적 탐구이고 교사는 이러한탐구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이 가치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서로 견해를 나누도록 격려 해야 한다.

물론 고사의 의견 가치가 있는것이니까 주저말고 의견을 발표해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고사가 모든 진리를 다 안다거나 깔혼을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이 자기의 견해와 다르다고 하드라도 모두 환영하고 비록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다해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학생들이 볼때 교사의 흥미와 이해가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되어야 하며 차기 학생들의 신임을 모은 고사는 복이 있는 교사이나 이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태도 — 토론할때의 학생들의 태도는 교사가 보통 가르칠때의 학생들의 태도에 대하여 두가지 점을 명기해야겠는데 첫째로는, 그들은 그들의 진실된 견해를 말하여야한다. 대개 학생들은그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교사가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답을 하기가 쉽다 교사들은 자기들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주일학교에 서는 그들의 견해를 정직하게 표시할수 있도록 격려해야한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해주기 원하고 또 학생들은 그 답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생활의 문제를 당면했을때 그들은 그들이 주일학교에서 답한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든대로 행동을 취하게 마련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 즉, 각 개인은 학생이나 교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어도 화를 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교사는 늘 자기가 학생들을 도말아 가르치는 관계로 어느 학생이 자기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이상한 긴장상태로 변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서로 의견을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반에서 기독교인의 태도와 정신을 견지 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록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도 그의견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할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주고 받음으로서 생각이 자라 날수 있고 또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수 있게 된다.

좌석 정리 — 좋은 토론을 위하여서는 좌석이 중요하다. 재래식으로 줄을지어 앉는것은 교사가 주동이 되는 인상을 주므로 원을 만들어 앉으면 교수 하기에도 더

좋은분위기를 주게 될것이다. 이와같은 자유로운 좌석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에 참석할수 있게 장려해 준다.

토론이란 학생들이 경험과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교사는 다음과같은 것을 주의해 보아야 한다.

1) 학생들의 얼마가 토론에 참여하고있나? 교사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

2) 교사가 어느 정도의 질문을 했는가?

교사는 때때로 적절하고 관련된 질문을해야 하며 이런 질문은 공과 준비때 기록 해 두어야 한다.

3)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질문을 했는가? 토론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 되면 그들은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4) 교사는 어느 정도의 답을 했는가? 학생들은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기때문에 너무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5) 학생들이 어느정도의 답을 했나? 교사가 모든 답을 다 알거나, 혹은 답을 다해야 될 필요는 없다. 물론 어느 학생의 질문을 다른 학생이 답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도표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토론의 형식

이제는 토론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토론의 기본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토론은 어떻게 계획하나? 토론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교사는 두가지 형식의 토론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직된 토론—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견의 차가 있을때 사용되는 비교적 정식 토론을 말하는데 첫째로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즉 그 문제는 범위가 넓고 학생들의 흥미에 비추어 볼때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공부시간 전부를 들여 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땐스 하는 것이 나쁘나?" 라는 문제는 모든 소년부와 청년부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둘째로 그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뚜렷이 다른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같게 되면 토론이 성립될 수 없다.
셋째로, 이런식은 비교적 형식적인 순서를 밟는다.

이런 형식의 단계로는 Rotnldwey 의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단계" 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진술— 신자가 땐스하는 것은 나쁜가?

(2) 문제의 정의— 토론이 시작할때 그 문제의 뜻이나 혹은 어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정의를 내려야 한다. 즉 땐스란 모든 종류의 땐스인가? 혹은 어떤 특별한 종류를 말하는가? 도덕적인 의미에서인가 혹은 그결과나 또는 나쁘다는 뜻은 영향력을 의미 하나?

(3) 문제에 대한 토론— 바로 이점에서 문제와 관계된 기독고 원리를 이해 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 할것이다.

(4) 요약된 가능한 해결책— 얼마 동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후에 고사나 혹은 지명된 학생이 지금까지 발표된 서로 다른 답들을 요약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어떤 효과없는 막연한 토론이 되고 말것이다.

(5) 평가된 가능한 해결책— 여러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발표한후에 고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체 토론에 비추어 다시 평가 하도록 지도 해야 한다.

(6) 결 의 — 이것은 토론의 절정인데 그 결의는 어디까지나 예배 드리는 태도로 결정 해야 한다. 고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 결의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한 성신의 인도 하심에 따라 결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교사는강제로자기 결의를 수긍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토론이 겨우 끝나갈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끝을 맺도록 해야 한다.

첫째, 어떤 결론에 일반적으로 동의가 있어 보일 때 교사는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 해보자" 라고 물어보아 학생의 결론을 칠판에 기록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규명 시켜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두가지 결론이 나오는 경우 그 두가지을 다 기록해 놓고 교사가 질문하기를 "누구든지 이 두가지 결론을 하나를 이야기 해 볼수 있을까?" 라고 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 시키는 것이 좋다.

(7) 행동— 그 결론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 토론의 성격에 따라 행동이 요구되는 것도 되지 않은 것도 있다.

비형식적 토론— 별로 의견이 상치되지 않을 단순한 문제나 질문에 대한 토론이다.

형식적 토론과 비형식적 토론의
차이점은

첫째, 비형식적 토론의 문제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둘째, 이 토론은 시간이 극히 제한 되었다.

셋째, 이 토론은 성질상 극히 비형식 적이며 위에 제시된 토론의 단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 주일 학교에서는 이런 형식의 토론을 주로 해왔지만 이제 부터는 토론의 단계를 따라 공부 시간 전부를 들어서 형식적 토론을 해 보는 것이 더욱 유익 할 것이다.

교사의 기능

토론을 인도 할때 교사의 기능과 책임은 무엇인가?

계획— 공과를 준비 할때 토론을 자세히 계획해야 한다.

문제제출— 문제를 제출 할때 세가지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로,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둘째로,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셋째로, 학생들로 하여금 그 문제와 그들의 생활과의 관계성을 알도록 해야 한다.

지도— 교사는 토론을 다음과 같이 인도 하여야 한다.

(1) 정로에서도록—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면 토론은 문제를 이탈하기가 쉬운데 이럴때는 토론을 정로로 이끌어 오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다.

(2) 무의미한 토론을 방지— 아무 소용이 없는 의견들을 내는 경우에 교사는 자기의 능숙한 경험에 따라 이러한 문제로 시간을 소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토론에 조언— 토론의 안내자로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로 발표해야 한다.

(4) 토론을 독점하지 않도록— 교사가 의견을 말하면 학생들은 그것이 결론인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토론을 중단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토론을 규명— 문제에 관계된 토론을 규명하여 그뜻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견문제공— 가능한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줄수 있어야 한다.

총괄적관찰— 어떤 질문이든지 다 뜻있게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 의견도 존경하여야 한다.

자유롭게— 좋은 토론을 갖자면 충분한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자유의 남용을 말하지는 않는다. 자유는 권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유 방임주의자인 교사를 좋다 하는 학생은 없고 중고등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를 보여야 하며 청장년에게는 충분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참석을권유— 말하기를 주저하는 학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토론에 끼이게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언제나 좋은 의견을 가진것은 아니고 부끄러움을 잘타는 학생이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점하지 않도록— 어느 한학생이 토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되 무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

" 그래 참 좋은 생각이야 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까?" 라고 이야기 하면 좋다.

결 론— 토론에 결론을 붙이기 위하여 고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

첫째로, 토론 도중에 앞의 의견과 맞추기 위하여 중간 요약을 해야 하며

둘째로, 토론이 끝날때 학생들이 동감하는 결론이 있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로, 결론이 같지 않을때는 서로 다른 결론을 다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가 치

토론식은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중의 몇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토론은 학생들이 신자로서 다당면 해야 할 문제를 다루게 한다. 기독교는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생활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신자의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 고사의 주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2.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견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견해와 깊은 지식을 얻게 된다.
3. 학생들이 성경을 그들의 생활의 문제와 관련 시켜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더욱 의미있게 될것이다.
4. 학생들이 반의 토론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규명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
5. 전체 토론에 비추어 자신의 견해를 평가하고 혹은 수정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단 점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토론식도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있다.

1. 토론은 결론없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되기 쉽고 행동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교사의 잘못이다.
2. 학생들이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갖지 못하여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끝이기 쉽다.
3. 비록 학생 전체가 내린 결론도 옳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들의 결론은 무지나 혹은 편견에 의한 오류가 될수 있다.
4. 공부 시간이 너무 짧에서 문제를 충분히 생각 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토론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사용 하는것이 좋다.
5. 토론의 결론을 내린후에도 아직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때는 후에 그 문제를 좀더 토론하든가 혹은 시간 관계로 그 의문을 무시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든가 하게 된다. 그 질문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혹은 만족한 답을 줄수 있는 의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안준비에의 안내

부장은 다음주일 공과 준비를 위하여 고사들이 토론석에서 배운점을 응용 하도록 해야 한다.

1. 고사들이 형식적인 혹은 비형식적인 토론식으로 공과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2. 학생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검토 토론 해볼수도 있다.
   (1) 토론할때 그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발표 하는지?
   (2) 다른 학생의 의견에 동의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3. 부장은 고사들에게 공과를 읽고 어떤 문제를 들어 토론할지 결정 하도록 해야 한다.
   고사들이 각기 문제를 질문 형식으로 기록하여 구릎별로 앉자 그 문제를 평가 해보는 것이 좋을것이다. 즉
   (1) 그 문제가 학생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실제적인가?
   (2) 그 문제가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얻을수 있는가?
4. 고안준비를 할때 고사들은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1) 그 토론이 고사의 고안 작성과 관련성이 있는가?

(2) 토론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학생들의 흥미와 기독교적인 관심을 일으킬수 있을까 ?

(3) 토론할때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수 있을까 ?

(4) 그 문제에포함된 기독교 진리는 무엇인가 ?

(5) 교사는 그 문제의 이면에 대한 생각을 갖게하는어떤 질문들을 준비했는가 ?

(6) 교사는 그 토론의 결론을 어떻게 맺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려는가 ?

(7)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생길때 교사는 어떻게 하려는가 ?

위와같은 문제들은 교사가 토론식을사용하려고 준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비조직적 토론— 이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토론을 말하는데 교사는 "신자로서 일요일엔 무엇을 해야되나?" 라는 문제를 낼수도 있다. 이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발표 하면 그 의견을 흑판에 기록해 놓고 "신자로서 일요일에 하지 않어야될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물을수도 있다.

이와같은 토론은 3분 혹은 5분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공과를 매울수있다.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교사가 원하여 그것을 확대해서 조직적 토론식으로 사용할수도 있다.

문제: 신자가 일요일에 목장에 가야하나 ? 이 문제에따른 다음과 같은 질문을만들어 학생들의 토론을 인도할수가있다.

(1)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2) 이 성경 공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을수 있는가?

학생들이 성경에 기준한 원리를 찾을수 있으면 흑판에 기록 하라.

(3) 위의 원리에 동의 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나, 있다면 그것을 기록 하라.

(4) 일요일에 극장 가는 것은 이 원리를 어기는 것이 되는가? 왜그런가? 혹은 왜 안그런가?

(5) 일요일에 텔레비 보는 것은 이 원리를 어기는 것인가? 왜 그런가? 혹은 왜 안그런가?

(6) 누구든지 지금까지 이야기 한것을 요약해서 결론을 맺을수 있나,? 있다면 흑판에 기록함.

(7)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 결론은 무엇인가? 흑판에 기록 하라.

조직적 토론— 이것은 공부 시간 전부를 들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좀더 조직적인 토론을 말한다.

(1) 문제의 진술: 사교적인 음주는 개인이나 사회에 좋지 못한가?

(2) 문제의 규명:

"사고 음주" 란 무슨 뜻인가?

"좋지 못하다" 는 무슨 뜻인가?

종교적으로 나쁘다는 말인가? 도덕적으로? 혹은 개인의 인격을 손상 시킨다는 뜻에서 나쁘냐? 혹은 이 모든 것이다 포함 되었느냐?

(3) 문제의 토론: 가능한 해결의 모색, 가능한 해결의 평가 이 세가지 단계가 다음 질문에 포함 된다.

a. 음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토론하는 문제를 이 성경 공부에 계속 연결 시켜야 한다.

b. 사교적 음주는 언제든지 나쁜가? 왜 그런가? 혹은 왜 그렇지 않은가?

c. 사교적 음주를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용납할수 있는가? 왜그런가? 혹은 왜 안그런가?

d. 지금까지 이야기 해 온것을 누가 요약해 볼수 있나?

e. 사교적 음주는 관찰 은가, 왜 그런가, 혹은 왜 안 그런가?

f. 사교적 음주는 사회적으로는 나쁘지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가? 왜 그런가, 혹은 왜 안그런가?

g 사교적 음주는 개인에게는 나쁘지만 사회적으로는 괜찮은가? 왜 그런가? 혹은 왜 안 그런가?

h 어떤 사람이 "내가 사교적 음주를 하는 것을 아무도 간섭 못하고 그것은 내 처사에 달렸다" 고 한다면 어떤가?

(4) 결론— 성경의 교훈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절대적인 헌신과 또한 학생들의 토론에 비추어 결론을 지어야 한다.

a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나? 우리의 결론을 흑판에 기록해 보자

b. 이 결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인지 흑판에 기록해 보자

토론식의 평가

공부를 한후에 아래의 질문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 할수 있다.

배움에 관한 검토 — 학생들이 활기 있는 토론을 갖었다고 해서 효과 있는 토론이라고는 할수 없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느냐에 대해서 고사는 주로 관심을 갖어야 한다.

(1) 학생들이 다른데서 얻지 못할 지식을 그 토론을 통해 얻을수 있었나?

(2) 그들이 당면해야 할 선택의 대상을 갖었는가?

(3)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규명되었는가?

(4) 학생들이 그 토론을 통하여 좀더 지성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나?

기술에 대한 검토 — 다음의 질문들은 방법 자체의 효과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1) 학생들의 전부, 혹은 거의 전부가 토론에 참적했나?

(2) 학생들이 그들의 진실한 감정과 견해를 표현했나?

(3) 학생들은 교사에게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질문을 했나?

(4) 학생들이 교사에게 뿐 아니라 학생들 서로에게도 의견을 표시 했나?

(5) 의견을 고환 함에 따라 협동적인 진리 탐구의 태도를 보였나?

(6)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할때 방해 놓지 않고 경청 했나?

(7) 그들이 토론을 심각하게 다루었나?

(8) 학생들과 교사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의견도 존중 했나?

(9) 토론의 결론이 만족하게 되었나?

(10) 어떤 실천이 필요 했다면 그 실천을 이루었나?

제 8 절 강 의 식

강의식은 학생들이 책을 가질수 없든 수세기 전에 시작된 것인데 오늘날엔 책과 다른 프린트 물이 많은데도 일종의 교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종 이 방법은 책에 쓰여진 것을 학생들에게 요약해 주는데 사용 되어온다.

최근에는 일반 교육이나 종교 교육에 있어서의 강의식 교육에 대한 신란한 비판을 가해 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비판은 정당 할지도 모른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중고등부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지루해서 잘 듣지 않는 폐단이 있다. 강의식은 주로 장년부에 쓰이는데 그것은 장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듣고 있다고 할수 없다.

장년들의 대부분은 강의식이 좋다고 하는데 그 주요한 이유로는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질문에 답을 못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의식은 학생들이 강의 듣기 전이나 후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어도 된다.
교사는 그의 목적이 학생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교사가 가르칠때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 혹은 정서적으로 반응을 보일때만 그 강의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어

야 한다. 효과 명을 볼때 강의식은 제일 어려운 교수법 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일 학교의 장년부에서는 주로 이 방법만을 사용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는 많이 듣기는 하지만 배우는 것이 별로 없게 되는 폐단이 있는데 강의식을 효과있게 하자면 재료를 잘 조직하고 박력있고 극적인 방법으로 교수 하여야 한다.

가 치

위의 글에 의하면 강의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효과있게 사용하기에는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교수법과 함께 사용할 분야가 있는 이론적이고 유용한 것이다.

실제로 강의식은 다른 교수법이 가리지 못하는 몇가지 장점이 있다.

지 식 — 교사가 가지는 주석이나 다른 참고서를 학생들은 대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넣어 줄때는 강의식이 제일 쉽고 빠르다.

이러한 지식이나 배경없이는 토론식은 전혀 가치가 없게 된다.

통 제 — 교사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가 무슨 재료를 사용하며 어떤점을 강조하고 또는 어느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때는 토론식 처럼 필요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 하거나 문제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게 된다.

시 간— 가르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데 강의식은 시간 절약이 많이 된다. 성경이나 기독교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것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을 질문이나 토론하는데 소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강의식을 통해서 많은 량의 지식을 넣어 줄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주어진 재료를 다 가르치면 교육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개 성— 교사가 그의 강의에 독특한 개성을 나타낼수 있다. 선지자들이 "주께서 말씀 하셨다" 라고 하듯이 어떤 권위를 가질수 있고 강의의 절정에 달할때 자기의 깊은 감정을 불어 넣어 학생들의 감정을 움직여서 고차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 하도록 이끌어 나갈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동적인 감정이 강의실 밖에 나가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조 화— 강의식은 한시간 동안에 다른 교수법과 어울려 사용 할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다른것과 어울려 쓸때 강의식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교사가 간단한 서론을 이야기 하고 잘못된 생각을 정리하고 질의 문답을 한후에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야기나 해설을 할수도 있다. 한시간 동안 강의식만 사용하는 것은 극히 고려해야 한다.

단 점

다른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강의식에도 몇가지 단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최소의 참가 강의식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듣기는 해도 배우기는 덜하고 최소한도로 강의와 활동에 참석하게 된다.

개인적 차이— 강의식은 학생 개인의 차이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어떤 학생들은 배우는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는 단지 그들이 아는것을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게 되고 그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그분야에 대한 지식적배경이 없어서 교사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강의가 다루지 않는 어떤 다른 점을 알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것 이다.

주 의 —교사가 강의할때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따라오며 이해 하는지 못하는지 알수가 없다.

의 문— 강의식의 또 다른 약점은 학생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물론 교사가 교재를 준비할때 학생들이 물을 만한 질문을 미리 생각해두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방적이 될수밖에 없다. 공부를 다마친후에 무슨 질문이

있느냐고 비로서 묻는다면 공부도중에 묻고 싶든 질문이 있었다고 해도 분위기가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주저 하게 될것이다.

공 헌— 고재 준비를 한교사나 혹은 어떤 개인이 모든것을 다 안다고는 할수 없는데 강의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가진 좋은 생각을 발표할수 있는 기회가 적다.

교육이란 생각과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가진 생각과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학생들이 비록 성경 지식은 없다고 해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때가 적지 않다.

기 술— 강의식의 가장 실제적인 약점으로는 말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극적으로 효과 있게 가르칠수 있는 교사가 아니면 강의식은 단조로운 것이 되고 말것이다.

사용의 회수

강의식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방법중에 하나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교사들이 그래도 강의식만 사용해 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릇된 생각— 어떤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은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공과와 다른 참고 서적을 공부해서 배운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주면 그뿐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간 절약— 강의식은 시간 절약이 된다는 이유에서 이다. 질의 문답 식이나 토론식을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학생들이 알어야할 많은지식과 상식을 가르칠 여유가 없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재료를 한번 거친다고 해서 공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관념일 수 밖에 없다.

관 습— 어떤 교사들은 강의식으로 배웠으니까 관습적으로 강의식으로 가르치게 된다.

무 지— 어떤 교사들은 강의식이외의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 하다가 실수할까 염려 되어서 아예 해볼 생각도 못한다.

반응부족— 또는 학생들이 아예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식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두번 학생들의 반응을 얻으려고 해도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교사들은 기권해 버리고 마는데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 맞도록 강의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또한 실증하는 사람도 많다.

통 제— 아마 대부분의 고사들이 강의식을 사용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시간을 통제할수 있고 까다로운 질문이 나와서 그것을 해결짓지 못하면 수치를 당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고사는 자기 준비 공부시간에 짜논대로 강의 하는 것이 안전하고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강의의 준비

다음 주일 공과를 준비해 보니 강의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될때 그 교수법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할까?
물론 거기에는 정해잔 식이 없고 교사자신의 의견에 따라 해야하지만 다음에 몇가지 제안을 해 보기로 한다.

지 식— 첫째로, 강의자는 강의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공과 뿐 아니라 성경 주석이나 혹은 다른 참고서적을 사용하여 진지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활기 있는 강의를 하자면 충분한 지식에서 여유있게 강의 할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한다.

목 적— 둘째로, 교사는 그의 강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하는데 그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려고 하는지 혹은

영감을 줄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강의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 진다.

개 요— 강의의 윤곽을 잡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개 서로 발전 그리고 결론으로 나눈다.

(1) 서론— 강의 시작할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공부의 중요성과 실재 생활과의 관계성을 학생들에게 설명 해야 한다.

서론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게 되면 강의 끝날때 까지 그들의 흥미를 이끌수 없게 될것이다.

(2) 발전— 고사가 가진 목적에 따라 강의는 발전되는데 지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는데서 모르는데로 잘알려진데서 잘알려지지 않은곳으로 인도해야 하며 학생들이 배우며 기록하는 것은 배움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고사가 강의의 목적과 발전을 정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를 참고해야 하는데 강의가 흥미 있게 되자면 그 강의와 그들 생활과의 관계를 볼수 있어야 한다. 또 학생들이 가질만한 의문들에 대해 답을 하도록 힘써야 고사와 학생이 같이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 하려는 태도로 공부할때 배우는 것이 많아 질것이다.

또한 교사가 한분야 한분야를 다루며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라 올만큼 명백해야 한다. 강의가 시작한후에 한가지씩 요점과 개요를 흑판에 적어 보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사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3) 결론— 전 강의는 결론에서 절정에 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획신, 헌신, 응용, 그리고 행동의 반응을 추구해야 할것이다.

강의 할때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 공과를 가르칠 시간이 되었다. 여기에도 공중 연설의 요령이 적용 되게 된다.

1. 교사는 준비한 교재를 자기것으로 소화 해야 한다. 비록 참고서나 주석을 통해 준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것으로 만들어 표현 할수 있어야 한다.
2. 교사는 그가 가르치는 교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여야 그 강의식 공부에 교사 자신의 개성을 불어 넣을수 있게 된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강의은 힘이 없게 될것이다.

3.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수는 있으나 모방해서는 안되고 독자적이 되어야 한다.
4. 고요하게 시작해서 결론으로 절정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전 까지는 대화식으로 강의 해야 한다.
5. 이야기 할때 학생들에게 시선을 주고 계속적인 접촉을 갖어야 한다. 교사가 강의 하면서 창밖을 내다 보거나 방 한구석만 들어다 보는 것은 퍽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이다.

   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정과 생각 까지 알수 있고 그들이 지루해 보일때는 강의를 중단하고 어떤 질문을 하든가 혹은 흑판에 무엇을 쓰든가 해서 그들의 흥미를 되 살려야 한다.
6. 명확하고 똑똑한 소리로 강의하여 학생들이 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량은 방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고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해야 한다.

   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 지려고 해면 말의 속도와 크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적도 있다.
7. 필요없는 손짓이나 문체를 피해야 하지만 극적인 표현은 흥미로울 수 있다.

8. 흑판에 쓰는것 같은 시각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배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9. 강의 하는 동안 요점과 개요를 흑판에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10. 좋은 예화는 학생들의 이해와배움에 큰도움이 될 것이다.

강의의 장점

강의식은 가치있는 교수법이며 종종 큰 이익을 줄수있다. 다음에 몇가지 제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강의식만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1. 학기전체를 소개할때 학생들에게 그 목적을 제의하여 흥미를 얻게 하고 그 학기의 방향과 필요한 배경적 지식을 주기 위하여 강의식을 사용 하는것이 좋다.
2. 일연된 강의를 요약 하려할때 강의식이 좋으나 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복습 시키려고 한다면 강의식과 질의 문답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학생들이 이해 하기 어려운 교재를 가르칠때 강의식을 할수 있다.

4.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지성적으로 토론 하는데 모자라는 배경적 지식을 넣어 주기 위하여 강의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어떤 교리적인 교재를 다룰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주일학교에 20년 이상 다닌 장년들이 성경을 지성적으로 토론할만한 배경적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강의식만 받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5. 시간절약이 필요할때 좋다.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로 늘 강의식만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량의 교재를 짧은 시간에 제공하는데는 강의식이 제일 좋지만 다량의 교재를 다루었다고 해서 제일 잘 배웠다고는 할수없다.

고안 준비에의 안내

부장은 다음 주일 공과 준비를 위하여 교사들이 강의식에서 배운 점을 응용 하도록 해야 한다.

1. 다른 방법아닌 강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하여?
   학기 전체를 소개 하기 위하여?
   일연의 공과를 요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혹은 기술적인 지식을 주기 위하여?

2. 공부시간 전체를 강의식만 사용 하려는지 혹은 강의식외에 다른 방법을 같이 사용 하려는지?
3. 강의 시작할때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사로 잡는가?
4. 고사의 목적이 사실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강의할때 자주 반복과 복습을 시키는가?
5. 고사의 목적이 영감을 주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강의의 절정이 있는가?
6. 명확한 강의의 윤곽을 잡었는가?
7. 그 윤곽이 고사의 목적과 일치 되는가?
8. 흑판 혹은 지도 같은 시각 교육을 사용할 계획인가?
9. 무슨 예화를 들려고 하는가?
10. 학생들의 의문될만한 점을 답해 줄만한 점이 그 강의에 있는가?

제 9 절 이 야 기 와 설 명 (예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자" 혹은 "예를들면" 이라고 고사가 이야기를 시작할때 학생들은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갖는지 모른다. 이야기는 옛날부터 고육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원시인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전해 왔으며 예수는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 하였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야기가 효과적인 고육 방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공부

전체가 성경 이야기를 중심해서 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중고등부, 청년부 혹은 장년들에게 이야기는 일종의 설명, 예, 사건 혹은 경험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설명" 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짧은 이야기라고 생각 될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점을 좀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설명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 방법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구라 할수 있다. 이제 주어지는 토론에서 "이야기" 와 "설명" 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된다.

배움과의 관계

어떤 교육 방법이든지 그 목적은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이야기는 배움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흥 미 — 배움은 흥미를 전제로 한것이고 잘 아는대로 이야기는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통찰력 — 배움이란 배우는 자가 통찰력을 얻도록 하려는 것을 말하는데 교사는 학생들이 "아 알겠다" 혹은 "이제는 이해 하겠다" 또는 "나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설명이란 학생들을 이러한 새롭고 더 깊은 통찰력을 얻도록 인도 하는데 가치있는 도움이 된다.

친근성 — 가르치고 배우는 원리등의 하나는 아는데서 모르는 곳으로 익숙한 것에서 익숙지 않은것을 익숙한 용어로 설명하고 추상적인 것을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설명 할수 있다.

문제해결 — 배움은 또한 문제해결을 뜻하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생활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 줄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그 이야기와 같거나 혹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것이다.

목적과 사용

이야기나 설명은 동시에 여러가지 목적에 종사 할수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야기를 사용해야 할까?

해석(설명)— 명확치 않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용 할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고사가 이야기를 통한 설명을 사용 하는것은 마치 커텐을 올려서 햇빛이 빛이여 들에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예 증 —배운 영적인 진리를 예증 하기 위하여 사용 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사는 그 진리를 살과 피로 옷입히듯이 실감있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즉 교육을 이론적 인데서 실제적인 생활을 이끌어 낸다는 뜻이 된다.

확 신— 학생들의 행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인다.

설명을 통하여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 이야기에 나타난 예를 학생들이 따르고 싶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할수 있다" 라고

강 조— 가르치는 점을 강조 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설교자나 교사들은 청중이 설교중의 이야기나 설명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주 목—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하거나 그들의 흥미를 더 깊게 하려는데 있다. 많은 연설가들은 그들의 청중이 지루하게나 주목하지 않을때 이야기나 설명을 해서 그들의 흥미를 얻게 한다.

이야기나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점을 잊지 말어야 한는데 첫째로, 이야기로서 그치지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가르친 점을 설명 하기 위한 예증이 되거나 혹은 행동을 자극 할수 있거나 해야 한다. 공부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서운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의 흥미나 끌려고 하는것은 금해야 한다.

둘째로, 이야기를 통해 흥미를 있으킬수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일연의 주석식 공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를 생생하고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는 좋은 설명을 기술적으로 선택 사용 할줄 알어야 한다.

원 천

위의 이야기에 대해 교사들의 방응은 "참좋은 이야기이지만 어디서 좋은 예화를 찾을수 있읍니까?" 일 것이다.

한마디로 교사는 눈을 크게 뜨고 그러한 예화를 찾으려고 살펴야 하며 그가 애쓸때 쉐스회어의 말대로 "돌에서도 설교를 얻는다" 교사가 눈만 있다면 가장 평범한 사건에서도 수많은 예화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예수의 원천 — 예수께서 깊은 영적 진리를 설명 하기 위하여 가장 평범한 사건과 경우를 들어 사용 한것을 주목해 보자.

(1) 농사 — 한번은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씨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매 어떤 씨는 이런 종류의 땅에 떨어지고 어떤씨는 저런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고 하셨고 또는 여기에 한남자가 풍부한 곡식을 걷우고 낡은 창고를 헐고 새창고를 짓고서 말하기를 "영혼이 편히 쉬어라" 하였다고

(2) 가정생활 — 동전을 잃은 여인이 그것을 찾을때까지 온 집안을 씰었다.

한 여인이 누룩을 빵에 넣으니 온 빵에 퍼졌다. 어떤 사람이 두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자기 유산을 다 받아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섯은 기름이 충분히 있었지만 다섯은 없었다.

(3) 직장생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일꾼들에게 맡겨두고 그종을 보내어 그가 받을 몫을 받아 오도록 하여 일꾼들이 그종을 심히 악하게 대접하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어떤 사람이 일정한 임금을 약속하고 몇일꾼을 들에서 일하게 하고 일이 끝나기 조금전에 다른 사람들을 더 채용하였다. 일이 끝난후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꼭같이 임금을 지불하였다.

(4) 정치생활— 세금 내는데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동전을 사용하시면서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가 말하기를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할때 자기보다 더 우수한 병력을 가진 왕과 싸울수 있는지 의논해야 할것이다.

개인적경험—예화의 가치있는 출처는 교사 자신의 경험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기독교 인의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듣고 싶어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교이다. 즉 공과나 혹은 다른 참고서적에서 나온 낡은 것이 아니고 가장 생생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너무 자주 이야기 하면 학생들이 싫증나게 될것이다.

최근의사건—최근의 사건을 통하여 예화나 경험을 이야기 할수 있다. 예수께서는 범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제사와 뒤섞여졌고 또 실로 암의 탑이 무너져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가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때 그중에 자기의 공과에 좋은 도움이 될만한 사건이타 이야기를 많이 찾을수 있을 것이다.

자 연— 자연은 오랫동안 예화의 출처가 되어 왔고 예수께서도 자연을 많이 인용 하셨다. 그는 들중의 가마귀와 백합꽃에대해 이야기 하셨고 하나님이 참새를 돌보신다는 이야기나, 모래위에 집을 짓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다고 하셨다. 우주의 정연한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를 설명 할수 있다.

본의 활기찬 생명을 통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수있다.

전 기— 전기는 교사들에게 실재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시인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들의 생활을 고상하게 만들수 있다고 암시해 준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성취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실수나 실패도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수많은 역사적인 위인이나 기독교 역사속의 영웅들이나 성경인물이나 과거와 현재에 걸친 위대한 선교사들의 생활을볼수가 있다.

일 — 교사 자신의 일 가운데서 예화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법에서 여러가지 예화나 유추를 얻을 수 있고 과학자나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분야에서 훌륭한 예화를 얻을수 있다. 만일 과학자 아닌 교사가 과학 부분의 예화를 사용할 경우에 그는 그 사건과 응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생중에서 누가 그 설명과 교사가 찾으려는 진리를 인정치 않게 될지도 모른다.

가정 부인은 가정생활에서 농부는 농장에서 기사는 기계에서 그리고 사업인은 사업에서 많은 예화를 얻을수 있다.

설 교— 설교나 다른 강연에서 좋은 예화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연사는 언제나 좋은 예화를 사용 한다.

교사는 언제나 적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가 좋은 예화를 들을때 적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사를 위한 공과— 이것은 교사가 가장 친근히 가질수 있는 원천인데 여러 종류의 공과를 쓰는 편집자는 저자에게 각공과에 맞는 예화를 써넣도록 권한다.

다른교사— 교사가 서로 그들의 이야기나 예화를 고환할수 있는데 그들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공부를 하려고 몰였을때나 공과를 준비 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진 예화를 발표할 수 있다.

자기의 교수법을 빛나고 생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사라면 그가 좋은 예화를 들거나 읽을때 카드에 적어 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는 언제라도 찾을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고안에 예화 사용

고안작성을 할때 언제 어떻게 예화를 사용 할수 있을까? 실제로 공과의 어떤 부분에도 사용 될수 있다.

서 론— 공과를 소개 하기 위하여 예화를 사용 할수 있다. 이것은 공부를 시작하는 우수한 방법이며 이럴때 사용하는 예화는 두가지 목적을 지닐수 있다. 즉 학생들의 주의를 곶 끌고 그 공부에서 생각될 중심되는 문제에 관심을 두게해 준다.

발 전— 강의의 발전 혹은 몸둥이라고 할수 있는 중심부에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예화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해를 규명하고 깊게 하려는데 있다. 지금까지 토론했으나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을 어떤 예를 들어 깨닫게 할수가 있다.

공부를 개인 소유가 되도록— 지금까지 배운 일반적인 영적 진리가 학생 개인의 매일 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가 어떤 사람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예화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 론— 공과의 응용을 해명하기 위한 절정을 이루기 위하여 결론으로 예화를 들수 있다.

이야기 할때

두 교사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중의 하나는 훨씬 더 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이야기 할때 고려해야 할 몇가지를 여기에 적어 본다.

이야기를 잘 알어야— 이야기의 내용과 그 사건들을 순서있게 머리에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된다.

명확히 보아야— 가능한한 그 이야기의 배경을 알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 할때 그때의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위치를 알수만 있다면 이야기를 좀더 다채롭게 만들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의 사건이 일어나든 것을 실제로 보는 듯이 그려보고 자세히 연구하여야 한다.

깊이 느껴야 — 이야기를 효과있게 하는데 가장 큰도움중의 하나이다. 교사가 그 이야기의 사건들을 자세히 볼수 있을때 또한 그사건을 느낄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그의 창작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가 보고 느낀것을 이야기 할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느끼고 설명하는 정도밖에 더 깊이 그 이야기를 느낄수는 없다.

극적으로 말들어야— 이야기에 극적인 요소를 넣어야 한다. 교사가 이야기 할때 그의 기분은 표현하기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교사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는 그 이야기의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

어떤때는 이야기를 느리고 명상적으로 하고 긴장이 필요할 때는 잠간 이야기를 중지 하는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절정을 이루어야—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점을 위해 이야기를 해왔다.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의 인간적인 용망과 정욕이 그릇된 방향으로 그를 몰아가게 된다.

그의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절정인데 이때 학생들은 그사태에 정서적으로 휩쓸려 들어가야 한다.

속히 끝내야—좋은 이야기란 속히 끝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절정에서 끝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마디를 더 붙이는 경우도 있다. 결론에가서 한담을 하면 이야기의 모든 효과를 망치고 말게 된다. 어떤 교사든지 연습을 통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 잘하는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자기 혼자 있을때 이야기를 연습해 보아야 한다.

좋은 이야기의 내용

좋은 이야기의 특징은

첫째로, 관련성(적절)— 이야기는 그 공과와 거기서 토론된 점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그 예화는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관련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등부 남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하여 가르칠때 은행에서 10만원을 훔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버스 운전수가 보지 않을때 버스 값을 내지 않으려는 위혹을 받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 보다 관련성이 적을 것이다.

흥 미— 흥미가 없는 이야기는 할 가치가 없다.

정 확— 실제로 있는 이야기일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는 만든 이야기인줄 학생들이 이해한다면 만든 이야기도 상관 없다. 교사가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자" 라고 할때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정확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성경이나 역사 혹은 전기에서 나왔다면 그 사건을 확인해야 한다.

간 략— 시간이 제한되었으니까 이야기는 간단히 해야 한다. 예수는 언제나 예외로 간단한 이야기를 하였다.

명 확— 인물과 문제와 사건들이 모두들는 사람에게 명확해야 한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혼동 되었을때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좌절되고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신 선— 오래 되었거나 여러번 사용한 예화는 공부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착란을 일으키게 된다. 김빠진 예화를 하기 보다는 예화를 아예 빼버리는 것이 더 좋다.

고안 준비에의 안내

부장은 다음 주일 공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여기서 배운것을 응용 해도록 해야 한다.

1. 부장은 고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예화를 서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2. 고사 한사람이 그가 하려는 이야기를 실지 시도한후에 다른 고사가 그태토에 대한 장점과 약점을 분해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고안 작성을 마친후에 고사들은 각기 그가 예화를 몇개 사용 하려고 했는지 검토해 보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자기가 계획한 예화의 목적을 지적해 보는게 좋다.
   (1) 그것이 진리의 표증을 줄수 있는가?
   (2) 그것이 진리를 설명 하는가?
   (3) 행동을 자극하기 위함인가?
5. 그 예화가 고사의 고안 작성과 맞아 들어가는가?
   (1) 공과의 서론에 사용하는가?
   (2) 공과의 발전밖에 사용 하는가?
   (3) 공과를 개인에게 응용 되도록 하기위함인가?
   (4) 공과의 결론에 사용 하는가?
   (5) 한가지 예화를 이와 같은 여러 부면에 사용하는가?
6. 각 고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자기의 예화를 평가 해 보아야 한다.
   (1) 그 예화는 핵심을 효과적으로 설명 하는가?
   (2) 흥미를 일으키는가?
   (3)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가?

(4) 정서적인 감동을 주는가?

(5) 교사의 견지에서 볼때 이야기의 사건들이 정확한가?

제 10 절 흉 내 내 기

흉내내기는 비교적 새로운 교육적 기술이다.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기술을 잘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 버리거나 혹은 사용 하기를 거절 한다. 교사들은 그들이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 잘아는 고수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 싫어하는데 부장은 이와 같은 기분을 교사들로 부터 제거해 버리도록 해야 한다.

흉내내기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정 의

어떤 아이들은 종종"주일학교 이나" "집놀이" 를 하는데 이와 같은 놀이에서 그들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낸다.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는"아이들을 책망하는 놀이" 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흉내내기란 이런 "꾸민놀이" 를 채용한 것인데 이런 놀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여러가지 다른 태도를 관찰하고 그러한 태도의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즉 학생들 중 몇명이 준비없이 간단하고 자의적인 태도로 어떤 사건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각본도 없고 암기할 것도 없다. 이것을 중등부에서 장년부까지 속한

학생들에게 적합할 것이고 주어진 문제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위치를 다루거나 (종종 사회극 이라 불리움) 혹은 개인의 정서적인 감정을 다르기로 한다(심리극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이런 방법에 대한 경험이 적은 고사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정서적 감정을 다르는 문제를 다루는데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예

비교적 이것은 새로운 교수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어느정도 상세한 표본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다.

지금 어느 교사가 16살난 남학생반을 가르친다고 하자. 공과 제목은 "어떻게 부모와 같이 살까?" 라는 것이다. 성구는 골로대 3:18—25 과 "자녀들아 모든일에 네 부모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실망되게 하지 말고" 라는 구절이다.
그 공과에 대한 고사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는 가정을 좀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수 있는 일을 적어도 한가지씩 발견하고 실천 하도록 지도하자" 라는 것이다.

공부 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처음 15분 동안은 고사가 쓰일것이고 이 구절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다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영적인 원리를 깨닫도록 지도 할것이다.

문제의 소개—우리는 신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상적인 원리를 알고 수긍해지만 종종 우리는부모와 출동하게 된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그도가 심해지는 예가 있다. 그런 사건은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신자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충돌을 피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가 사는 가정을 좀더 행복하게 하여야 하겠다.

여기에 내가 어떤 사태를 설명해 줄테니까 그것을 될수 있는데로 심각하게 다루어 행동으로 표시해 보자

어떤 부분은 좀 우서울지도 모르지만 한사람도 웃지않도록 조심하자" 라고 교사가 문제를 소개 하는게 좋다.

인물의 선택과 지시— 교사는 죤에게 아버지 역을 맡기고 샘에게 아들역을 맡긴다음에 두 학생이 서로 듣지 못하도록 따로 놓고 그들의 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아버지역에게 "네 아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하자 옷도 정리하지 않고 집안 일도 돕지 않으며 그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한다. 그는 언제나 밖에 놀러나가려고만 해서 그의 이기적인 성격이 너를 성나게 만드는 때가 있다. 지금 그가 밖에 나가겠다고 해서 네가 허락지 않으니까 서로 좋지 않는 말이 오고가다가 이제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자"

아들역에게: 네 아버지는 이것도 하지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언제나 성가시게 군다. 오는저녁에 놀러나가겠다고 하니까 못나가게 하셔서 결국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역할을 설명해준 후에 몇분동안 생각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설명 하기를 "전형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듣겠는데 아들이 놀러가겠다니까 아버지가 거절을 하게 된다. 두 학생이 행동으로 표시 할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질문을 두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들의 대화가 그렇게 끝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그런 사태를 변화 시킬만한 방법은 없을까?

장면의연기— 밖에나가서 생각하고 있든 두 학생이 들어와 서로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다가 논쟁의 도수가 높아지면 약 1.2 분 후에 그 연기를 중단 시킨다.

연기에 대한토론— 고사는 아버지역을 맡은 학생에게 "아버지로서 너는 아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었나?" 라고 묻고 아들역을 맡은 학생에게는 "아들로서 너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느꼈니?" 라고 질문 한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준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묻는다. 두사람이 화가 났다는 피상적인 사실 뒤에 숨은 이유를 찾아내도록 지도 하면 그들의 생각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재연기ㅡ토론을 한후에 같은 학생이나 혹은 다른 학생을 시켜 그 사탬를 다른 각도에서 재연기 하도록 한다.
아버지가 거절하면 아들은 "아버지는 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와 의견이 맞지 않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하는일이 많다고 생각, 되는데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을 적어 주시면 제가 노력해 보겠어요" 라는 다른 각도의 대화를 고사가 제시 할때 두학생은 자동적으로 재연을 할것이다.

장면의토론ㅡ 그리고는 고사가 "그문제에 대해 이렇게 접근한다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좀더 행복해 질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공부시간 처음에 이야기 하든 영적 이상에 대해 이런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여 영적인 이상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좀더 행복한 관계를 이루도록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목적 선정ㅡ 이런 공부를 실제 생활에 적응 시키기 위하여 고사는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일 동안 여러분의 부모와 좀더 행복한 관계를 미룰수 있는 일 한가지씩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여 종이에 적어 보도록 한다. 다음 주일에 그 문제를 다시 토론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전교과 준비에 흉내내기

흉내내기는 공부시간 전부를 들어 하지는 않는데 공부시간에 흉내내기를 사용 할수 있는 몇가지 의견을 적어 보겠다.

공과의소개—학생들의 흥미를 잃지않고 심각한 성경 규절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 한다.

공과의발전— 학생들로 하여금 그 성경 구절에 포함된 영적인 이상을 확혀 이해 할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들이 이런 이상을 생활에 옮기도록 지도 한다.

공과를 개인에게 맞도록— 흉내내기는 바로 공과를 학생를 개인의생활에 맞도록 하려는데 사용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때 당면하는 문제들을 연기하여 그들이 그 문제를 좀더 명확히 분석하고 영적인 이상에 비추어 그 문제를 해결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에의실천—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일주일 동안 실천할 목표를 정하게 한다. 다른 고수법과 마찬가지로 이 연기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될 때만 사용 하여야 하며 너무 자주써서 상식적인 놀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사용하는 단계

이 교수법을 사용할때 교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교사의 책임은 무엇이며 그가 고려해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

인도와 지도—교사는 전과정을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억압은 하지 말고 학생들이 최대한도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문제를 연기하도록 분해— 예비 공부 할때 학생들이 행동할 문제를 분해 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며 각연기자에게 줄 행동과 학생들에게줄 질문등을 잘 결정해야 한다.

문제를 선정할때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첫째로, 이 놀이가 처음인 경우에 문제는 간단하고 구체석이어야 한다.

둘째로, 문제는 학생들의 생활에 실감을 줄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시간 배정인데 처음에는 추측하기가 어렵겠지만 경험해 감에 따라 공부 시간과 연기에 쓸 시간적 배정을 잘 할수 있게될 것이다.

문제까지 인도— 공과의 내용에서 부터 연기의 문제로 연결시켜 가야 한다.

문제의 해설—그들이 배운 엉적이상이 그들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한 후에 문제를 아주 생생하게 설명 하여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동화되게 되어야 한다.

인물 선정— 인물을 선정하여 그들 마음대로 행동 할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을 생각하여 거기에 맞도록 연기 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나가서 연기하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지만 간단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주면 그들이 깊은 흥미를 느껴 이런 난점을 초월할수 있을 것이다.

인물에게 지시— 역활맡은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 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인물에 대해 설명 하고 그들에게 할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인물을 생각하며 자동적으로 행동 할수 있도록 지도한후에 1.2분동안 각기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지시—역을 맡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이제 연기할 사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그들이 주의해 보아야 할 점들을 지시해 준다.
이런 지시 사항이후에 토론의 중심이 될것이다.

장면의 연기—연기가 충분히 진행 되었을때 그것을 중지 시키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연기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게 되지 않도록 교사는 주의해야 한다.

장면의토론— 이것은 전과 정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관찰한것을 분석하고 평가 하는 것이다. 이런 토론을 통하여 그들은 더 깊은 견해를 얻고 신앙으로 사는 길을 발견 할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연기—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견해를 얻었을 경우에 다시 그 사건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목적 설정— 연기와 토론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생활인지 분석하고 각 학생들이 그가 하고저 하는 목적을 정하여 그들의 일상 생활에 적용 하도록 지도 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다.

장점과 단점

장 점

(1) 교사와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격려되는 교수법이다.

(2)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 포함 되도록 한다.

교안 준비에의안내

부장이 미리 어떤 사건을 계획하여 교사들이 R.P 을 하도록 하면 좀더 이런 방법의 의미를 느낄수있는것이며 여기서의 사건은 공과와 관련된것이 아니라도 좋다.

공과를 준비할때 부장이 고려하야할점들은 다음과같다.

(1) R.P 이 이공과에 효과적일까 ?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과에만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2) 교사들은 R.P을 할수 있는 중심되는 문제를 공과에서 확인할수 있을것이다.

(3) 학생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서론을 준비하고 또한 그 공과에서 주는 영적인 이상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수있도록 발전시켜야한다.

(4) 교사들이 문제를 계획한다.

(5) 그 문제는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것인가 ?

(6) 어떻게 문제를 제시해야 학생들이 깊이 감명을받을수 있을까 ?

(7) 각연기자들에게 주어야할 지시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해놓아야한다.

(8) 학생들이 주목해 보아야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해놓아야한다.

(9) 장면을 연기한후에 거기에대한 토론을 어떻게 지도 할것인가 ?

(10) 토론후에 그것을 다시 연기할 필요가 있을까 ?

(11) 이런공부를 통해 학생들 자신이 배운 목적을 세울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제 11 절 계 획

계획이란 무엇인가 ?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특수한 기술이라고도 하고 어떤사람은 학생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라고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계획하는 면을 강조 하기도 한다. 즉 학생들이 그 활동의 각 단계에 전부 참여한다는뜻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기술적인 정의에 있는것이 아니다.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계획이란 학생 전체가 그들이 배운 공부를 좀더 깊게 하거나 혹은 표현해보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계획 방법은 새로운것은 아니고 원시시대 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냥이나고기 잡이를 가서 행동으로 배울수있게 한때부터 교육의 방법으로 쓰여졌다. 오늘 날에도 일상생활에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즉, 아들이 연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도와 주기도하고 딸이 처음으로 빵을 굽는데 어머니가 도와주기도 한다.

청년들을 위한 농업 기관에서는그들이 딸기를 심고 소를 치고 옷을만들고 곡식을 파는일을 해보도록 장려한다. 고사가 이러한 방법을 고실에서 사용할때 그것을 계획이라한다.
오늘날 많은 주일학교교사들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계획을 고실에서 사용해 온다.
그들은 단순히 이와같은 활동이 공부에 좋은 도움이 되라라고 생각해서 벽돌을 성경책으로 간주하고 그 벽돌을 성경의 각 책을 암기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배움이란 단순히 이야기하고 듣는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것을 고사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기독교의 진리는 실제로 생활에 표현되기 전에는 배웠다고 할수 없는것들이 있기때문이다.

계획과배움

사람들은 다양적인 방법으로 배우겠지만 배움이 경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배움은 의미있고 오래 지속될것이다. 배움을 경험에서 격리하면 할수록 배움은 더욱 어렵게된다.
바우만은 말하기를 경험과 생식에의하면 학생이 단순히 선영의 이야기를 듣고만있으면 그는 사실상 비활동적이거나 시험삼아 어떤 반응을 보일뿐이고 그의태도나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좀더 높은 효력을 가진 교육방법은 학생자신이 사건이나 혹은 직접 견학하여 얻은 관찰을 통한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도 학생은그 자신을 별로 노출하지도 않고 얻는것도 별로 없게될것이다. 좀더 효과있는 단계는 대리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것이다. 학생은 좀더 깊이 열중 되어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장소를 느끼는 단계로 옮겨진다. 가장 높은 단계는 학생이 잠재적으로 완전히 열중하면서 직접 얻는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배움의 방법중의 하나는 "행동으로 배우는것" 이다. 아무리 고사가 부인에게자식에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깊은 관심을 설명해준다해도 그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그 관계를 직접 알게될때에야 비로서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게된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은 아이와의 관계에 다만 생겨지는 것이며 경험으로서 알게되어야 한다.

그후에 어머니로서 여러가지 책임을 경험으로 알게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경험할때 비로서 그리스도를 알게된다. 신앙생활은 교사가 기독교인이 되는법을 이야기 해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실제 경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사람이 신자가 되기 위하여는 꼭 경험해 봄으로서만 된다는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란 경험속에 표현되어야하고 이런 표현은 가끔 계획의 형식을 취할때가 있다는뜻 이다.

종종 주일학교에서는 큰 문제들을 토론은 하지만 그일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경우가많다. 어떤때는 신앙 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도 적극적인 결론을 얻을 시간이 없든지 혹은 시간을 내지 않든지 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응용을 공과 끝에 이야기해 줄 뿐 그것을 실천할 아무런 결정적인 결심이나 계획을 세우지않는다. 매일 요일마다 이렇게 큰 문제 들을 토론만하고 아무런 결정도 없이 지나보내고 만다.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통하여 배우는것이 무엇일까 ? 그들이 배운다는것은 주일학교에 와서는 또여서 이야기한다는 사실뿐일것이다.

주일학교가 이런상태에 있다면 고사든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배운 기독교이상과 진리와 태도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표현을 하도록 해보아야한다.
계획이란 이렇게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실제 생활로 옮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이다.

형 식

교실에서 사용할수 있는 계획에는 어떤 종류가있나 ?
다음에 주어진것은 각 계획의 기능에따라 분류된것이고 실제로 뚜렷한 구별을 할수가 없다.

다음에 주어진 분류를 통하여 교사들이 고실에서 사용할수있는 여러가지 계획에 대한 이해를얻기 위함이다.

지식— 이런 형의 계획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지식을 깨달아 알도록 지도하려는것이 그 목적이다. 중등부 학생들이 "교회" 에 대한 일연의 공과를 공부해 온다면 그들이 이 공부를 교회에 관련시킬수 있는 계획을 가질수 있다. 학생들 중의 여러사람에게 그 교회의 역사, 재정 문제, 선교활동, 예배 활동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해오도록 할수 있다. 고등부 학생들이 그리에 대한 공부를 해온다면 여러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들을 발견하고 그런 단어에 대한 사전을 자기에 끼리 만들어 보자고 할수 있다. 그들이 모르는 단어를 찾어 기록 함으로서 그들이 모르든 뜻을 알게될것이다. 장년들도 이와같은 계획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태도— 이런 식의 계획은 학생들의 태도를 고치거나, 발전시키거나 혹은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학생 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갖도록 하려는것이 교사의 목적이라면 일요일 저녁에 학생들을 데리고 빈민촌을 방문하는게좋다. 또는 학생들이 금주에 대해 공부해 오는데 한학생이 말하기를 술마시는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는일이라고 한다면 교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게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더러 술마신사람들이사고를 일으키는데 대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수도 있을것이다.

또는 토요일밤에 큰 병원의 응급치료소를 견학해도 좋을것이다.

습관— 이 계획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어떤 습관을 길러 주려는 것이다. 중등부 교사가 볼때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다던가 쪽지를 적어 돌리든가, 찬송가를 떨어트리든마 혹은 교실에서뛰어다니는 경건성이 적은 태도를 볼때 그들이 좀더 경건해 질수 있는 계획을 해 볼것이며 혹 어떤 반학생들에 성경을 읽는다면 매일 성경을 읽는습관을 키울수 있는 계획을 하는게 좋다. 장년반 교사는 학생들에게 매일 가정 예배를 볼수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볼수도 있고 이외의 여러가지 좋은 습관들이 계획을 통해시작될수 있다.

봉사— 이것은 배운 기독교이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움이 필요한곳에 가서 봉사하거나 혹은 어떤곳에 가서 헌신하는것이다.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흔히 해보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예배를 보아줄수도 있고 감옥이나 양로원같은곳에 방문해도 좋다. 또는 결석한 학생들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어떤 고등부에서는 몇년전에 항가리의 피난민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가지고 그냥 이야기만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해보기로 하고 자기 집과 이웃에 다니며 옷을 걷우어 모으고 상자를 구해

수많은 옷을 넣어 피난민들에게 보냈다. 어떤 고회에서는 새 에배당을 짓기로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일을 좀 도와주자고 결정하고 품팔이 일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고인집에 일하러 오면 품깍는일, 창고에 페인트 칠하는 일 애기보는일 혹은 차소제하는일들을 맡기고 삯을 주었는데 그들은 이 모든 돈을 고회 건축을 위하여 바치기로하였고 6주간동안에 수많은 돈(2천불)을 벌수있었다. 이런일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고회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기 동리에 있는 젊은 사람을 위하여 좀더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결정했을때 그들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젊은 사람들이 한가할 때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것이다. 계획은 교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할수있고 만일 중등부 학생들이 성지(예루살렘) 지도를 그린다면 매주일 공과외에 몇 분씩 들여 완성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과외 활동으로 할수도 있고 단체적으로 할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다. 학생들이 시립병원을 방문 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단체활동이 될수있고 가정에배 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개인활동이 될수 있다.

계획을 지도하는단계

위의 토론에 비추어 볼때 계획에는 두가지 중요한 효용성이 있는것을 알게 되는데 즉, 첫째로는, 신학적인 용어에대한 사전을

만드는것과 같은 공부를 위한것과, 둘째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것같은 그들이 가진 영적인 이상을 실제 활동으로 표시하는것 이있다. 계획을 성공 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해야되는데 실제적인 계획의 준비는 학생들이 하지만 어떤 일을 해야하며 또 그런일의여러가지 의미에 대한 고려는 교사가 교재준비할때 미리 생각해 두어야한다. 교사들은 다음에 나오는 준비단계를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한다.
학생들의필요— 학생들이 어떤 일을 시작 하려면 그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한다. 이런 의욕은 공부시간에 외는을 함으로서 얻어질 수있는데, 교사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머리에 두고 교재 준비를 해야할것이다.

가능한 반응— 교사가 교재 준비를 할때 그 교재에 맞는 여러가지 일을 구상해보고 거기서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일하나를 선정해 볼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학생들이 어떤 일을 구상해 보도록 권하고 그들이 제의한 계획이 교사가 생각지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기독교 복음에 합당한것이고 또 학생들의 시간과능력에 맞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의 제안을 따라야한다.

계획선택— 학생들이 일을선정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선정할수없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교사가 일을 선정 할때 학생들이 꼭 그것을 영광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되어야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사가 그 계획을 중지하는것이 훨씬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계획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영적인 기반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획—계획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만들어야하는데, 즉 학생들이 지식을 좀더 얻어야한가?누구가 그 지식을 공급하겠는가 ? 위원회가 필요한가 ? 그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 학생들이 언제 모여야할까 ? 이런 결정을 할때 교사는 학생들을 지배하지 말고 인도하며 용기를 주어야한다. 이런 일에 대한 토론을 할때 교사는 학생들의 결심, 과 실천에 대한 토론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도록 조심해야한다. 일의 성격에따라 시간이 결정되는데 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공부시간을 잘 조절하여야한다.
계획을 끝내기전에 끝나는 종이 울린다면 그 활동의 효과를 많이 잃게될것이다.

실천—대부분의 일은 교실밖에서하게 되지만 몇분동안 할수 있는 것도있다. 즉(성경책 이름을 암송 하든가 혹은 성지 지도를 그리는 일같은것은) 이런 P 를 할때 교사의 임무감독과 지도와 격려다.

성경책 이름을 암송 하든가 혹은 성지지 도를 구리는일같은 것은 공부시간 마지막 몇분동안 할수있다. 이런 계획을 실천할때 교사의 임무는 감독과 지도와 격려하는일이다.

계획의평가 — 어떤 계획은 평가가 필요없지만 또 어떤계획은 평가할 필요가있다. 즉, 계획이 만족하게 되었나 ?
어느 부분이 잘되었나 ?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나 ?
우리 약점은 무엇인가 ?
다음에는 어떻게하면 좀더 잘할수 있을까 ?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였나 ?

가 치

1. 배움을 좀더 흥미있게 만들어준다.
2.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의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배운다.
3. 계획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얻게 된다.
4. 학생들이 여러가지 책임을 수행할때 지도력을 기를수있게 된다.
5. 같이 일할때 협동심을 배우게된다.

6. 종교란 교회에서 이야기 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표시해야된다는것을 알게해준다.

7. 활동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예를 들면 선교계획을 통해서 그들이 교실에서 배운 공부를 통하여 알지 못했든 선교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된다.

8. 이런 활동을 통하여 얻은 배움은 오래 지속되고 의미있는것이 된다.

주의 사항

1. 교사는 선택한 계획이 학생들이 배우는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하며 단순히 학생들이 활동을 하겠다는 뜻에서 계획을 해서는안된다.

2. 교사는 학생들에게계획을 하도록 강요해서는안된다.

3. 봉사적인 계획을 할때 학생들이 남을 얕보는 기분을 갖지 못하도록 지도해야한다. 자기들과 같은 혜택을 입지못한 사람들을 찾어가서 도와주는경우에 자신들을 그 사람들과 동등하게 생각하여 도울수있도록 지도해야한다.

4. 계획을 실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교사와 학생들은 자진해서 이런시간을 바쳐야하며 또한 바친시간의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

5. 계획을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말어야한다.

얼마나 계획을 자주 사용해야되는지 아무도 이야기할수는 없으나, 배우는공과와 계획의 난점, 또는 학생들의 책임 등을 참고해서 해야한다. 어린학생들이 할수 있는 간단한 계획은 비교적 자주 사용해도 되지만 어렵고 복잡한 계획은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

고안 준비에의 안내

부장은다음 주일 공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배운점을 응용하도록 해야한다. 고사들을 지도하기 위한 질문:

1. 학생들이 실천할만하다고 고사가 생각하는 계획은 두엇인가?
2. 그 계획은 고사가 생각하는 고 재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
3. 고사가 계획한 공과가 충분히 재미있고 흥미있어서 학생들이 계획에 착수하고 싶은 의욕을 얻을수 있는가 ?
4. 고사는 어떻게 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실천할까 ?" 라는 질문을 하도록 지도 할수 있을까 ?
   (1) 학생들이 그 계획을 시작해야 된다면 고사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흥미와 용기를 주어 그 계획을 시작 하도록 하려는가 ?
   (2) 고사가 그계획을 시작한다면, 어떻게하여야 지배하지 않고 인도할수 있을까 ?
   (3) 학생들이 결정한 계획이 고사가 계획한것과 맞지 않을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여유가 준비되어있는가 ?

5. 학생들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안을 세워야하나 ?
6. 그런 경험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
7. 계획을 계단에 따라 정했는가 ?
8.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공부시간중에 이런 시간을 소비할만한 충분한 여유가있는가 ?

제 12 절 시 각 교 육 도 구

"선생님, 네 사람이 병든 친구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방안으로 내려놓았을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지붕에서 떨어지지않았나요? 그들이 앓는 친구를 들고 어떻게 지붕에올라갔나요?" 라고 10살난 학생이 공부시간동안 알고 싶은 질문을 하였을때 교사는 물론 그 지붕은 평평한것이었다고 설명은 했겠지만, 유대인의 평평한 지붕과 당에서 그 지붕까지 놓여진 층계를 그린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더 좋은 답이되었을까 ? 또 유대인은 종종 그 지붕위에 과실을 말리기도하고 선선한 저녁에는 그위에올라가 앉기도하고 또는 베드로 처럼 지붕위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해줄수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만 하기보다 거기에 대한 그림을 같이 보여 줄수 있다면더 생생한 교육을 시킬수 있을 것이다. 시각교육은 여러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에 사용되어왔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각 재료를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 부면에 대해 잘알고 있다. 군대나 사 업기관

에서 이것을 다량으로 사용하며 또한 시각고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많이 배우고 더빨리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할수있게 해준다.

성경 공부를 위하여는 시각 고육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몇가지 어려운점이 부여된다. 성경은 고대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을 다루는 고대의 책인데, 이런 고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습관을 생생하게보여줄수있는길이 있어야한다. 예수님이 병든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으라고 하셨을때 그자리는 어떤것인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았다고했는데 그 강보란 어떤것인가? 그림을 통하여 이런 구절을 명확히 설명할수있다.또 마리아가 애기를 구유에 뉘었다고 했는데 이런것이 보편적인 사실인가 ?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긴 집에서 살었나 ? 동물들이 주인과같이 집속에서 살었는가 ? 와 같은 질문은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답해 질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시각 고육을 생각할때 영화나 환등같은 영사기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물론더 우아한 효과를 내는것은 사실이지만 주일학교에서는 영사기 아닌 시각고육 도구를 쉽게 사용할수 있다. 이런것들은 비싸지도 않고 사용하기에 간단하며 대부분의 고실에 다 설치되어있는것이다. 즉, 흑판, 지도, 견학보고, 게시판, 물체, 모델, 도표, 약도, 혹은 각본같은 것이다.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칠 판

이것은 교사가 가장 쉽게 지닐수 있는 재료인데 그재료의 사용도와 접근성, 효과와 가격을따진다면 흑판이 가장 으뜸되는 재료가 될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치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교사들이 사용하지않는것은 비극이라할수 있다.

칠판의 장점

(1) 비교적으로 값이싸고 사용한후에 지우고 다시 사용할수있다.

(2) 교사가 필요할때 언제든지 가질수 있다. 다른 그림이나 무슨 도구 처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3) 사용하기 쉽다. 칠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것은 금을 쓸줄 아는것 뿐이다.

(4) 학생들의 주목을 끈다. 학생들은 칠판에 쓰여진것을 거의 자동적으로 쳐다보게된다. 또한 칠판은 연령의 제한없이 교사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 지시 시작하면 교사는 놀아서서 그들이 배우는것과 관련있는 어떤것을 칠판에 기록해 보라. 그들이 곧 주의를 집중하여 쓰여진것을 볼것이다.

(5) 교사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는 칠판에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가르치는데, 교육의 75-90%는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하니 교사가 학생들의 시각을끄는것이얼마나중요한가?

형 태 — 전체 집합 장소에는 받침대가 있는것이 좋고 고실에는 벽에붙여만든것이나 또는 움직일수 있는것이나 다름없다. 또 방의 크기에 따라 칠판의 크기도 정해야하며 칠판과 게시판을 겸한것을사용해도 좋을것이다. 색갈은 밝은 초록이 좋으며 값싼것이라고 경제되는것은 아니다.

용도— 몇가지 가능한 용도를 들겠는데 고사가 이외의 사항을 덧붙일수도 있다.

(1) 고사의 의견을 강조 하기 위하여

(2) 학생들의 의견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렇게함으로서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더잘 평가할수 있다.

(3) 반대되거나 대조적인 사항을 기록하여 생각해 보기위하여

(4) 새롭거나 잘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5) 통계 숫자를 기록하기 위하여, 통계 숫자를 이야기만 하면 곧 잊어버리거나 잘 알어듣지 못하게된다.

(6) 공과의 개요를 보여 주기 위하여

(7) 그림이나 약도를 그리기 위하여

(8) 지도를 그리기 위하여

(9) 그라프나 도표를 그리기 위하여

(10) 반의 보고를 기록하기 위하여

지 도

주일학교에서 제일 등한시 하는 시각고육 재료가 칠판이라면 지도가 그 다음이 될것이다. 고실에 여러가지 지도가 있는데도 그것을전혀 언급하지 않는 고사가 많다. 최근의 세계 정세로 인하여 사람들은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든 장소에 대하 잘알게되었는데 기독교고사들에게도 이런 지도가 중요한 고수재료가 될수 있고 또 돼어야한다.

형태—교실에 알맞는 지도로는 여러가지 형이 있는데 각 교실에 지도를 다 사 놓으려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어떤 고회에서 지도 여러개를 사서 고회도서관에 보관해 두고 고사들이 필요할때갖어 가도록 해 두기도 하지만 여러 고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지도가 필요할때는 또 문제가 된다. 고과 혹은 도청 시각 고육 직원들에게서 고실에서 사용할 지도에 대한 지도를받도록 해야한다.

(1) 지구 모양의 지도는 지구같이 생겨서 제일 정확하다고 할수는 있지만 두가지 실제적인 단점이 있다. 그 첫째는 지도가 너무 작어서 팔레스틴같은 나라에 대해 공부할때는 상세한 것들이 나타나지않고 둘째로는 어떤 장소를 찾아 고실에 배치해둘수가 없고 단지 고회 도서관에만 둘수있다.

(2) 모형 지도는 산, 고원, 계곡과 같은 땅의 지세를 보여준다. 이런 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의 비유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도 내려 갔다는이야기를 이해할수 있게 해준다.

(3) 평지 지도는 주일학교에 가장 흔한것인데 그것도 여러가지 형이있다.

가. 연대별—팔레스틴지도에도 아브라함 시대의 팔레스틴, 왕국분렬시대, 그리고 예수시대의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면 그 차이를 알수 있다.

나. 독적별—이스라엘의 광야 방황에 대한 지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지도, 또는 예수의 생애 가운데 있든 사건들에 관한 지도나 현대의 선교지역을 보이는지도가있다.

다. 지구별—팔레스틴만 있는 지도, 아부라함의 여행을 보여주는 바벨론과 팔레스틴의 지도, 가나안으로가는

ㅇ 이스라엘민족의 여정을 보여주는 애급과 팔레스틴이든 지도, 또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이기 위한 전근동지도가 있다.

(4) 가능한한 고사는, 성경 지도서 하나는 갖고 있어야하고 교회 도서관에는 한두가지 지도가 참고용으로 배치되어있어야한다. 지도서에는 지도, 설명, 그리고 지역적 위치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다.

학생들이 만든지도—학생들이 만든지도는 교육재료로 가치가 있으므로 특별히 고려해야한다. 학생들이 팔레스틴의지형을 보이는 지

도를 만드는 계획을 갖게 될때 밀가루와 명반 ($KA\ 1\ (SO4)_2\ P\ (H_2O)$ 과 소금을 섞어만든 반죽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학생들이 지도를 만들려면, 팔레스틴의 산, 계곡, 그리고 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것이다. 평지 지도로는 바울의 전도, 예수의 생애, 혹은 아브라함의 여행과 같은 여러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만들수 있다. 이런지도를 만들때 강조될점은 우수한 지도를 만드는데 있지 않고 여기서 얻어지는 지식에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을수 있는 교육적 기회는 수없이 많다. 이런 교육은 영구히 남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사들은 그것을 사용할 용기가 생긴다.

목적 — 지도를 통해 교육에 공헌할수 있는 여러가지 목적이있다.

(1) 욥바, 나사렛, 유다, 사마리아, 혹은 아씨리아와같은 도시나 나라의 위치를 보이기 위하여

(2) 방황하든 광야와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의 형태를 보이기 위하여

(3) 바울의 전도 여행과같은 어떤 여행을 추적하기 위하여

(4) 단에서 부엘세바와같은 어떤 장소의 거리와 관계성을 보이기 위하여

(5) 성경의 사건을 현대의 위치에 연관시키기위하여

사용 원리—다른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지도도 최대한의 효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하는데 여기에 몇가지 제의를 든다.

(1) 지도는 필요할때 쓸수 있어야한다.

(2) 즉 교사는 언제 어떻게 지도를 사용할지 미리계획해야한다. 교재 준비 할때 교실에 지도가 있는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형의 지도 인지, 그 지도를 어떻게 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지알어야한다.

(3) 지도는 학생전체가 볼수 있을만큼 커야한다.
교사가 지도의어떤 곳을 지적할때 학생들이 볼수있는것은 그 지역이 아니라 교사의 손가락 뿐일 경우가 많다. 학생수가 적어서 가까히 모여 지도를 볼수 있는지, 혹은 지도가 크든지 해야한다.

(4) 교사는 지도에 사용된척도와 표식을 학생들이 잘 알아 볼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도에 나타난 인치는 1마일, 10마일 혹은 50마일을 상징하는지를 알도록 해야한다.

(5) 끝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든지 혹은 어떤 설명이 필요할때 지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평지 사진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왔는데 종종 각 교파에서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들을 위한공과에 알맞는 그림

들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연령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것이며, 사실 평지 사진은 어떤연령에게도 효과적으로 사용될수 있다. 이런 사진들은 책, 신문, 잡지 혹은 다른곳에서 구할수 있다. 사진은 고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사진을 통하여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성경시대 혹은 다른 나라의 지대, 혹은 습관을 이해할수 있게 된다. 기업심이 있는 교사는 각고파의 선고잡지, National Geographic 혹은 그와같은 잡지에서 유익된 사진을많이 모을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유익된 사진을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면 그것을 모아 두어야하며 쓴 사진들은 잘 정리해 두어야한다. 혹은 공부시작할때 그들의 흥미를 끄는데 사용할수 있다. 술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잡지에난 여러가지 술광고를 보여 줄수 있고 술취한 사람이 차사고를낸 사진도 보여줄수있다. 이렇게 함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배우려는 문제로 집중시킬수있다. 사진은 교사가 가르치는점을 설명해 줄수도 있고 굶주린 사람이나, 빈민굴을 보여 줄수도있다.

평지 사진을 사용할때 교사가 주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다 사진은 공부시간 중의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는 필수적인것이 되어야한다. 사진은 학생들이 다 볼수 있을만큼 커야한다. 사진을 볼때 학생들이 무엇을 주목해야할지, 설명을 해주어야한다. 학생

들이 무엇을 주목해야할지설명을 해주어야한다. 학생들이 사진을 보고 상각할수 있도록 너무 급히 보여 주지 말어야한다.

견 학

학생들은 견학을 통하여 교실에서 얻을수 없는 생생한경험을 얻을수 있다. 계획을 위하여어떤곳에 간다는것은 주로 가서 봉사하기위한 목적에서 이지만, 견학이라는것은 교육적인동기를 가지고 시청각교육을하기 위한것이 그 목적이다. 견학은 되도록 공부시간이외에 가도록해야한다.

단계— 최대의효과있는 견학을 하려면 고사가 주의 깊게 갖추어야 할 몇가지 단계가 있다.

(1) 목적—학생들은 그 견학의 목적을뚜렷이 알어야한다.
고사는 공부시간에 견학을 통하여 얻을수 있는 유익한 점들을 이야기 해주어야한다.

(2) 준비—견학할 장소, 날자와 시간, 고통, 그리고 안내같은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아야한다.

(3) 적당한 예비— 첫째로, 학생들의 견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어야한다. 둘째로, 학생들의 견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보려고 하는 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 주어야한다 셋째로, 그들이 무엇을 주의해 보아야할지 지도를 받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든가, 혹은 학생들이 알어보고 싶은 점을 적어 보아도 좋다.

이런 질문이나 명단을 견학할곳에 미리 보내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런 점들을 잘 보여줄수있도록 하는것이좋다.

(4) 견학— 견학할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목할 점들을 일러주어야하며, 학생들은 알고 싶은 점에 대해 질문을 해야한다. 그래서 견학하는 동안 어느 정도 분석과 평가를할수있고 지식도 얻게 된다.

(5) 견학후에 토론— 배우는 목적을 위하여 이 토론은 가장 중요한것이다. 견학후에 될수 있는한 속히 학생들이 날견한점들에 대해 토론할수 있게 해 주어야한다. 그들은 서로 얻은 지식과 인상을 발표 하게 될것이다.

(6) 실천— 견학 후에 실천이 필요하다면 어떤 행동을하기로 결정해야한다. 그 견학을 통해 어떤 지식만을얻게되었다면 실천단계는 삭제될수도 있다.

(7) 감사장—견학후에 방문한곳에 감사장을 보내서 친노한사람이 자기 한일에 보람을 느끼며 다른 방문객에게도 솔선해서 봉사할수 있도록 해야 에의있는 태도가 된다.

견학할 기회— 단순히 거리에 있는 교회를 견학할수도 있는 반면 다른 지방으로 견학할수도 있는데, 견학을 통해 배우는 경험은 한이없다. 어떤 신학교에서는 일년에 두번씩 버스를 대절하여 학생들이 자기 고파 본부를 하루종일 견학하도록

주선을 해놓았다. 다음에 견학할수 있는 장소를 적어 보면,

신조가 다른 교회 방문
다른 고파고회방문
동리의 도움이 필요한곳을 방문
재판소 방문
감옥 방문
토요일밤에 큰 병원의 응급치료실 방문
고파 병원방문
고파 대학 방문
고파 본부 방문
고파 고아원방문
양노원 방문

견학의 가치—견학의 직접 경험을 통해 오는 정서적인 매력을 얻을수 있다. 이것은 활동을 통한 배움이기때문에 더 생생하고 오래 지속된다. 또한 견학을 통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얻을뿐아니라 좋은 태도를 발전시킬수도 있다. 토요일 저녁에 큰 병원의 응급 처료실로 견학을 간다면 술먹은 결과로 생겨진 죄의결과를 직접 목격 하기때문에그들의 태도에 깊은 신념을 남기게 될것이다. 신자들은 동리의 불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갖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빈민굴에 견학을 가게되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여야된다고 생각되도록 더 깊은 의미를얻게 될것이다.

게시판

주일학교에 있는 게시판은 광고, 포스타, 혹은 다른 등 반문제와같은 것들을 붙이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것은 그것을 교육적 도구로 사용한다는것인데 공과와 관련되는 사진, 신문, 잡지 혹은 다른것들을 게시판에 붙여 놓을수 있다. 학생들이 게시판을 볼적 마다 그들이 배운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은 교육을 이루게 될것이다. 학생들도 공과와 관련된 사진이나 여러가지를 갖어오도록 힘쓰도록 해야한다. 게시판을 사용하는데 주의 할점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거기 붙인것들은 공과와 관련이 있어야한다. 둘째로 게시판에 붙이는 광고 같은것은 낡은것이 아닌 최근의 소식이 되어야하며 셋째로, 붙이는 재료들을매력있게붙여야 한다.

사 물

초기에 사람들은 대상과의 접근을 통하여 배웠고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배운다. 사물을 가지고 학생들이 익숙히 알지못하든 사실을 직접 가르칠수 있다. 학생들이 선교지역으로 갈수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옷, 동정, 가정 물건등을 가지고

박물관을 차려 놓았다. 성경시대의 물건들도 효과있게 사용될수 있고 적은 유대인 두루마리(성경)를 싸게 살수도 있다. 유대인들의 등잔, 동전 혹은 다른 적은 물건들이 교사의 교육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모 형

이것은 실제 물건의 복사라고 할수 있는데 오지음의 학생들은 학교나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이런 모형을 잘알고 있다. 남학생들은 비행기, 자동차 혹은 보트모형을 만들기도하고 군인이나 사업인들도 모형을 늘 다룬다. 여러면으로 보아 모형은 실제 물건보다 교육에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학생들이 어떤 모형을 만들려고 여러가지 지식을 모을때 가치있는 교육이 성립된다. 즉 신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배워 왔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학생들은 그 성전의 모형을 만들기로하고 그 성전의 벽, 이방인 이 모이는 장소, 경계하는돌, 여자들을 위한장소,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 제사장들의 장소, 방이 두개있는 성전등을 배우게 될것이다. 또는 예루살렘도시나 팔레스틴집같은 모형을 만들수도 있다. 모형은 완전하게할 필요는없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배운다는것이 중요하다. 만들어진 모형은 다른반 학생

들이 후에 사용할수 있도록 간직되어야한다.

도 표

도표는 사람, 생각, 장소 혹은 사물들의 관계를 보이기 위한 것인데 사업가들은 이것을 많이 사용하며 주일학교에서도 사용할수있다. 도표는 종이나 천에 만들어서 오래 쓸수도 있고 칠판에 임시적으로 만들수도 있다. 어떤 청년부에서는 초기 히브리 역사를 도표로 만들고 중요한 인물, 중요한 연대, 중요한 사건 등을 기록해 넣다. 이렇게 할때 비로서 그들은 그 역사의 뜻을 알게되었다. 또는 분렬왕국시대의 도표를 그려서 여러왕, 그들이 통치한 연대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넣을수있다. 또는 요셉의 가정을 보이는 나무 모양의 도표도 만들수 있다. 만일 어떤 반에서 8세기 선지자들에 대해 배운다면 기둥 모양의 도표를 만들고 공부해 감에 따라 각선지자의 이름, 연대, 그들이 일한나라 이름, 그 당시의 왕, 그나라의 사회적 정신적 상태 그리고 선지가의 중요한 예언등을 기록해넣을수있다. 이런 도표를 통하여 학생들은 이 사건과 다른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수있게 될것이다.

그라프

그라프는 통계학적 혹은 수적인 보고를 말하는데 숫자를 이야기로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이 귀 잊어버리기 된다. 학생들은 그라프를 통하여 관계성과 비교를 더욱 잘 알게될것이다. 완전하게 정확한 그라프가 아니어도 좋고 일반적인 지식을 줄수있는것이면 된다. 공과의 내용이 청직이에 대한 것이라면 그 교회의 재정 문제를 그라프로 그려 보아도 좋다. 매 주일마다 출석 보고를 크게 하기 보다는 일년의그라프에 출석수를 기록하여 수년동안의 출석 도표를 만들수 있다. 통계학적 보고가 필요할때는 도표가 꼭 필요하다.

연 극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연극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장년들을 가르칠때 연극을 사용하지 않아서 손해본점이 많다고 할수있다. 그렇다고 장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실제로 연기하라는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장년들이 연극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 년령의 차이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연극에 참가하거나 구경하기를 좋와한다흥내내기는 공부시간동안에

사용할수 있는 일종의연극이다. 만일 공과가 잠언 15:1절에 나온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하여도 과격한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10대 소년 소녀들중에 두 학생에게 이 구절이 제시하는상태를 연기하도록 하는데 한사람은 확가나서 다른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려고하고 다른사람은 신자다운 태도로 부드러운 답만하려고 한다. 2. 3분동안 연기를 한후에 교사는 "확난 사람이 부드러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느꼈나 ?" "부드러운 대답을 한사람은 어떻게 느꼈나 ? 부드러운 대답이 비겁해 보였나 ?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내었나 ?" 와 같은 질문을학생들에게 해보는것이 좋다. 장년반에서 욥에 대하여 몇주일동안 공부해온후에 현대어로 그책의 연극을 꾸며 보기로 하였다. 각인물들의 대화를 기록하려고 그책을 공부할때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는 그책의 가장 기본되는 의미를 알게 될것이다:

고안준비에의 안내

다음에 제시한 질문은 부장과 그사들이 다음 주일 공과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1. 이번 공과에 칠판을 사용할수 있을까 ?
2.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수 있을까 ?

(1) 공과의 개요를 위하여 ?

(2) 어떤 문제를 강조 하기 위하여 ?

(3) 학생들의 생각을적어 보기 위하여 ?

(4) 다른 어떤 방법을 위하여 ?

3. 공과의어느 부분에 칠판을 사용 하나 ?

4. 이번 공과에 지도를 사용할수 있을까 ?

5. 무슨 목적으로 사용될수 있을까 ? 공과 준비에는 언제 어떻게 사용될수 있을까 ?

6. 학생들이 그들의 지식을 더 깊게 하기 위하여 지도를 만들어야 할 까 ?

7. 평지 지도가 이번 공과에 도움이 될 까 ?

8. 어떻게 사용될 까 ?

(1) 공과를 소개 하기 위하여 ?

(2) 어떤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3) 다른 방법으로 ?

9. 학생들의 고욱을 더 깊게 하기 위하여 견학할 필요가 있을까 ?

10. 견학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 ?

11. 이번 공과에 게시판을 사용할수 있을까 ?

12. 사물을 사용하는것이 도움이 될 까 ?

13. 학생들이 모형을 만드는것이 좋을까 ?

14. 도표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역사적 관계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까 ? 도표는 종이나 포스타지에 만듭 지속할수있는것인가 혹은 칠판에 관든 임시적인것인가 ?

15. 그라프를 사용하면 통계학적 숫자가 좀더 의미있게될까?
16. 연극을 사용할 기회가있는가 ?

제 13 절 투 영 적 시 각 교 육 도 구

이런 도구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교, 군대 혹은 사업부면에서 수많이 전시되었고 주일학교에서도 꼭 같은 효과로사용할 수있다. 여기에서 논의될 네가지 도구로는 영화, 휠림 스트립 (Felmstrips), 환등, 그리고 불투명 영사가 있다. 이런 도구는 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첫째로, 교육은 흥미를 기초로 한다. 어떤 형의 영사기 든지 학생들의 흥미와 주목을 끌게된다. 둘째로, 교육은 필요를 기초로 한다. 사람들은 시각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개인 생활에 필요한것을 알게된다. 영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그 사회나 선교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것이다. 이런 시각적인 제안은 수많은 말보다 더 효과적일것이다.
셋째로, 사람들은 활동을 통하여 배우는데 시각교육은 보는 사람들의 정신활동을 일으키고 자극시킨다. 그들은 영화에나타난 행동에의하여 감동 되기도 한다. 넷째로, 영화는 각개인의 차이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말만을 가지고 충분히 배

을수 없고, 시각도구는 직접적인 경험을 주지는 못해도 간접적인 경험을제공해준다.

어귀의 난점

종교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항상 어귀의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는 두가지 위험성이 포함되어있다.
첫째로, 학생들은 그들에게 별로 의미도 없는 단어들을 배우게 될것이다. 교사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칠때 학생들은 그런 단어의 뜻을 전혀 혹은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기사가운데 어린 소녀가 주기도문 배운 이야기가 실렸는데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해야할것을" 세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였다한다. 장년들도, 중생, 의롭다고 여김, 성화와같은 단어의 뜻을 물으면그들은 머뭇거리게 될것이다. 두째번째, 위험성은 교사가 기독교적 이상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할때 학생들은 그 진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배우게된다. 물론 학생들이 그 단어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단어가 제시하는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시각도구를 사용하면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행동적인 전시를할때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진리를 깨닫게된다. 또한 영사기는 애매한 사상을 뚜렷하게 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신자들은 우리를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핍박하는 사람을위하여 기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진리를 표현할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무엇인가 ? 시각 도구는 이와같은 막연한 이름을 실제적으로 만들고 개인의 제한된 경험 밖으로 인도해주는 역활을한다. 또한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든 어떤 사건을 연상시켜줌으로서 현재의 입장을 이해할수 있게도해준다. 또한 학생들의 경험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각적 전시는 먼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들을 다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험은 학생들이 직접 얻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하는것도 있는데 즉 젊은 학생들이 술로 인한 죄악상을직접 경험한다는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영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직접 경험을 통하지않고 그 죄악상을 똑똑히 볼수있다. 또한 시각 전시는 학생들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더 실제적으로 접하는기회를 준다. 신자로서의 증거란 무슨 말인가 ? 개인이 실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의 긴급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처리를 할수 있나 ? 시각고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태도를 제일 잘 고칠수 있다. 시각고육은 정서적인 감동을 일으키는데 학생들은 자기에게 정서적으로 친근해지는 사람이나

어떤 원인들과 자신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가 그의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용 원리

시각 도구와 영화는 사람들의 여흥거리라고 생각을 해오지만 주일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은 여흥을 위한것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는 사건을 보이는것과 사진을 사용하는것과의 차이점을똑똑히 알어야한다. 시각 도구를 사용할때 다음에 제시된 단계를 꼭 따러야한다.

목적 — 교사가 정한 목적이 공부할때 생기는 모든일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그 목적은 배우는 성경과 학생들의 필요에 기인해야한다.

재료 — 교사가 정한 목적과 공과에 맞는, 어떤 시각교육재료를 구할수 있는가 ? 이것이 사용된 재료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것이다.

질서 — 재료를 교파의 서점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구했다면 그것을 질서있게 정리하여야한다. 교사가 환등이나 필림은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도서관에서 구할수도 있다.

재료를 예습—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재료를 익숙히 알도록 해야하며 그것을 전체 공과에 어떻게 맞추어 사용할지 생각해야한다.

계획—그 재료를 어떻게 소개할지 계획해야한다. 재료를 보여주는것이 아니고 사용한다는것을 기억해야한다. 보여줄때는 학생들이 두엇을 주목해 보아야할지 일러주어야한다. 또 그것을 보여준후에 토론할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런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얻었고 어떤 문제들을 발견했는지 알어보고 질문을 할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결심을 세울수도 있다. 이런 토론을 통하여 고사는 그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도구—토요일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것이 좋다. 어떤 사람이고 일요일 아침에 일찍와서, 도구를 다 맞추고 학생들이 오기전에 모든 정리를 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방의 전기사정과 환기문제등을 조사하고 의자도 알맞게 정돈해 놓아야한다.

서론—고사의 고안에 맞는 서론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그 재료가 다루는 문제점을 알려주고 어떤 질문을 해 놓아서 후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

전시—휠림이나 그외의 시각도구를전시할때 적당한 평가를 해야한다. 휠림의 어느 부분만 사용하여 공과에 맞는 면만을 보여주는것도 좋다.

토론—재료를 보여준후에 학생들이 본 점에 대하여 토론을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다. 평가를 내리고 질문에 답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할수도 있다.

영화

•이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인데 그 장점으로는

(1) 학생들의 주의와 흥미를 집중한다. 이점에 있어서 어떤 다른 재료보다 제일 우수 하다.

(2) 어떤 행동의 의미를 중요시할때 가장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사물, 사고 그리고 사건과의 관계성을 관찰할 필요가있을때도 있는데 예를들면 음주가 가정을 망치는 원인과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 줄수 있다.

(3) 영화에행동이 전개될 때 그 인물이나 사건이 생생하게살아난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영화에서 그의 인품과 여행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더욱 실제적으로 나타날것이다.

(4) 이와같은 현실감때문에 그들의 정서를 자극 한다. 세상에 있는 굶주린사람이나 전쟁고아나 사회악을 실제로 볼때 그들의 감정은 움직여지고 이와같은 정서적인 움직임이 행동보다 앞서 일어나야한다.

단 점.

영화가 효과적인 반면 몇가지 단점도 있다.

(1) 그 가격의 문제이다. 영사기 값이나 필림을 빌리는 값은 다른 재료보다 훨씬 비싸다

(2) 다른 재료보다 기계가 좀복잡하나, 그렇다고 다루기에 아주 어려운것은 아니다.

(3) 교사가 어떤 산곡을 보여주고 싶을 경우 영화보다 환등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 또 어떤 나라의 옷이나 집구조를 보여주려고 할때는 행동이 필요 없으므로 환등이 더 효과적일수있다.

(4) 영화는 빨리 돌아가지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교사가 어떤 평가를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영화를 소개할 때 나 보인후에 토론할때 교사가 중심이 될수는 있다.

(5) 영화를 볼때 학생들의 생각은 즐긴다는데 머물르기가 쉽다 이런 이유때문에 교사는 영화를 보여주기전에 소개를잘하고 본후에 토론을 잘 이끌어야한다.

어려운점— 비록 영화가 효과적이라해도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데 문제되는 점들이 있다. 첫째로, 도구가 크기때문에 적은 교실에 배치하기가 어렵다. 둘째로, 어떤 필림은 너무 길어서 30분동안의 공부시간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소개나 토론을 할 시간

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소개나 토론을 할시간이없다. 그러나 요지음에는 짧은 휠림을 많이 만들기때문에 이것은 극히 문제가되지 않는다. 셋째로, 휠림값이 너무 비싸다. 학생수가 8혹은 12명밖에안되는데 휠림을 8불 혹은 10불 주고 빌리는것은 주저될 일이다. 한휠림을 가지고 여러 반 혹은 학생전체가 보는것은 좋지않으므로 극히 조심해야한다.

전체 모임에— 학생 전체가 모여 예배 형식으로 영화를 구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때는 예배 형식 보다는 교육을 위하여 구경하는것이 좋다. 전체가 모였을때 본 휠림에 대하여 각반에서 따로 토론하도록 하는것이 좋은데 이런때는 부장과 교사들이 긴밀한 조직을 해야 한다. 부장과 교사들은 미리 부터 어느 공과에 휠림을 사용할지 결정하고 4혹은 6주간전에 결정을 해야 한다. 휠림이 도착하면 부장과 교사들이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그들의 목적을 정하고 부장이 어떻게 소개를 할지 결정해야한다. 휠림을 전체 모임에 사용하고 그후에 각교실에서 토론을 할 경우 부장과 교사들은 다음의 문제들을 고려해야한다.

(1) 학기 목적을 소개하기 위하여

(2) 학기 공부를 복습하기 위하여

(3) 사회 문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4) 성경 재료를 실감 있게 하기 위하여

(5) 선교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6) 청직이 혹은 복음 운동 같은 신자적이상을 소개하기위하여

휠림 스트릎

이것은 영화만큼 화려하지는 못해도 어떤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일수있다. 이것은 각교실에서 사용될수 있는데 도구도 크지않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않다.이방법을 등한시하는 교사들은 공부를 좀더 흥미있고 오래 지속되고 의미있게 하기를 등한시하는것이다.

(1) 수많은 재료가 있다. 현재로는 다른어떤 재료보다 이런 식의 교육적 재료가 제일많다. 교사가성경공부나, 기독교 가정, 젊은이들의 문제 혹은 다른 어떤 문제를 가르치려고 할때, 언제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재료를 구할수있다.

(2) 별로 비싸지않다. 어느 교회이고 이정도의 도구는 하나쯤 보관할수있고 교회 도시 관용으로 이런 휠림들을 사두고 여러 기관에서 사용할수 있다.

(3) 교사들이 필요할때 언젠가 가질수있고 다른 도서관에 문의할 필요가 없다.

(4) 도구는 사용하기에 아주 간단하다. 어떤 교사들은 이런 도구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만 누구든지 잠깐 동안 그 용

(5) 이것은 연속된 흘림이기때문에 환등 흘림처럼 따로떨어지지 않는다.

(6) 오랫동안 한장면을 보일수 있기때문에 교사는 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설명이나 혹은 질문을 할수 있다.

단점

(1) 물론 행동이 필요한경우에는 비적합 하다.

(2) 영화 처럼 정서적인 감동을 일으킬수 없다.

(3) 흘림이 고정되어 있어서 교사의뜻대로 다시 정리할수가없다

(4) 도구를정리하는데 시간이 든다. 그러나 교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시간이 드는것은 사실이다.

이 재료를 사용할때— 뚜렷한 목적을 세워야한다. 또한 선택한 재료를 그의 공과의 일부로 사용할수 있어야하며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토론할지 미리 계획해야한다. 보여줄때 그가 이야기할점, 지적할점 혹은 질문등을 생각해 두어야한다. 학생들에게 성경적 배경이나 구약성경의 인물, 예수의 생애와 일, 바울에 대하여, 성경 시대의 습관과 옷차림 혹은 팔레스틴의 지형에 대하여 가르칠때는 흘림이 제일 효과적이다. 혹은 한학기를 통한 공부가 사회문제, 범죄문제, 남녀문제, 신앙적이상, 혹은 선교에 대한 것이라면 흘림을 사용하는것이 교사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다.

환 등

환등을 에배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고실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장 점

(1) 도구가 적어서 고실에서 사용할수있고 가볍고 사용하기에 간단하다.

(2) 공과를 소개할때 사용될수도있고 후에 토론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주기위하여 사용될수도 있다.

(3) 수많은 재료가 있다.

(4) 같은 환등 필림을 교회 도서관에 사두면 각 고실의 공부에따라 여러가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수 있다.

(5) 광선이 조금있는곳에서도 사용될수있다.

(6) 환등을 오래 켜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토론 혹은 질문을 할수 있다.

(7) 고사의 공과 목적에 따라 몇가지 필림만 골라서 사용할수 있다.

단 점

도구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미리 도구를 조절해야 한다. 행동이 필요할때는 적당치 못하고 필림을 꺼꾸로 넣으면 공부의 지장을 초래해도 된다.

사용할때— 한공과나 혹은 학기 공과를 소개하고 복습하는데 사용될수 있고 성경 시대나 혹은 선교지역의 생활 을 보이는데는 제일 적합하다. 어떤 공사들은 개인 환등기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의 공과 목적이 선교에 있다면 그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사진으로 보여 주면 학생들이 실제적인 필요를 알게될것이다.

불투명 영사

이것은 가장 잘알려지지 않은 재료인데 이것은 평지 사진을 반사되는 거울과 스크린을 통하여 사용하는것이다.

장 점.

(1) 책이나 잡지, 혹은 신문에서 발견한 그림을 쉽게 사용할수 있다. 또는 책에 나오는 사진이나 구절을 투영시킬수도 있고 교사의 재료에 따라 그림의 한계가 정해진다.

(2) 사진을 필요에 따라 겹겹히 놓을수 있다.

(3) 사진은 그 색갈대로 투영된다.

(4) 이 기구는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수 있다.

(5) 사용하기에 아주 간단하다.

단 점

(1) 기계가 크고 무겁다

(2) 환등기 보다 거의 배나 비싸다

(3) 보이는 사진의 크기가 한정된다 대부분의 기계는 10인치 정도의 사진만 보일수 있다

(4) 광선이 전혀 없는 곳이어야한다. 그것은 반사 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선있는곳에서는 되지 않는다

고안준비에의 안내

이런 재료를 사용할때 부장은 사전에 고사들과 자세히 의논해야한다. 첫째로, 그는 그 사건과 관계되는 공과를 일요일에 배운다면 사진은 그전 수요일 저녁에 보여주어야한다. 둘째로, 충분히 사전에 계획하여 필요한 때 쓸수있어야한다. 학기 공과를 준비할때 어느 주일에 사진을 보여야될지 결정할수 있다. 셋 째로, 부장은 이런점을 제의할때 고사들에게 어떤 시각 도구를 제시해 주어야한다.

(1) 고사들은 그 공과의 목적을 정해야한다.

(2) 공과의 목적에 따라 어느 사진이 제일 효과적일지 결정해야한다.

(3) 선택한 재료가 공과의 목적에 합치되어야한다.

(4) 사용 방법을 고사들과 복습해야 한다.

(5) 영화를 전체 모임에 사용하려면 부장과 고사들이 전체 계획을 같이 세워야한다.

1) 휠림을 미리 보고

2) 부장이 그 휠림을 어떻게 소개할지 구상하고

3) 고사들이 고실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

(6) 휠림 스트립을 사용하려면

1) 전체 공과 목적에 적합한가 ?

2) 사용 방법을 다시 연습해야 한다

3) 휠림을 보일때 어떤 평가를할까 ?

4) 무슨 질문을 할까 ?

(7) 환등을 사용 하려면 ?

1)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나 ?

2) 공과에 어떻게 사용되게 되나 ?

(8) 불투명 영사를 사용하려면

1) 원하는 사건을 구할수 있는가 ?

2) 여러 사진을 겹쳐 놓아야하나 ?

3) 공과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용 되는가 ?